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7일)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文정부 불교차별에 준엄한 경종 울린다

1.21 전국승려대회 당위성과 지향점

1월 21일 개최될 전국승려대회는 단순한 규탄의 장이 아니다. 우리사회 속 종교로 인한 갈등을 완전히 종식시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전환점이다. 전국승려대회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편집자주〉

신성민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종단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승려대회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1월 13일 열린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범대책위원장인 원행 스님의 모두 발언 중 일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1월 21일 개최되는 전국승려대회의 진행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승려대회의 시작은 오후 2시 전국 사찰이 일제히 타종하며 시작된다. 타종은 육바라밀의 의미를 담아 6번 이뤄진다. 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의 교시도 발표될 예정이다.

매서운 추위와 동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스님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뤄진 종교편향과 차별, 불교왜곡에 준엄한 경책을 내리기 위해서다. 사태의 발단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불교폄훼 망언이었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망언 직후 수차례에 걸쳐 참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댓글 여론'을 운운하며 조롱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이었다. 정부가 나서 '공공선교'를 자임한 것이었다. 즉각 불교계는 반발했고, 결국 황희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캠페인은 중단하지 않았다. 불교계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등은 여러차례 소통행보를 이어갔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공공영역에서 나타난 종교편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기독교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당시부터,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 종교차별은 예견돼 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의식구조는 '종교 인권 감수성'의 미비로 이어졌고, 정권마다 각종 편향 정책을 야기했다.

종교편향에 대해 인내했던 불교계의 분노가 1차로 폭발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8.27범불교대회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청래 불교폄훼 망언 시발점
늑장 · 일방적 사과 분노 확산
캐롤 통한 공공선교 나오면서
반세기 이뤄진 종교편향 반발

'종교감수성' 낮은 韓사회 정서
공공 부문 종교편향 악습 키워
종교편향 바로잡는 건 파사현정
종교감수성 확산 계기 만들어야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편향으로 인한 갈등은 사회 화합의 저해 요소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종교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다. 이는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이 대부분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가질 때 나타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행정수장인 대통령의 종교가 문화의 영역으로 파고들며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이뤄진 '캐롤 활성화 캠페인'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문체부는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연말연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승려대회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뤄진 종교편향 행위에 내리는 준엄한 경책의 죽비다. 사회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파사현정의 전법행"이라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의 소임자들이 헌법에서 규정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중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종교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 한국불교 자주화'를 대회의 기치로 내건 만큼,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응과 '종교 인권 감수성'에 대한 사회 여론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 사회에의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교 인권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직무에서의 차별적 언행이 어떤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종교편향 · 차별 행위가 근절될 시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라는 실체적 이익이 실현될 것임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단일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사회,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종교감수성을 제고하고 제도화는 물론,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지 특집 섹션 8면 발행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



조계종은 1월 11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동체대비 실천으로 불국토 구현"

조계종, 1월 11일 동화사서 신년하례 법회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새해 국민에게 희망을 전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는 1월 11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불 앞에서 열린 신년하례 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임인년 새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으로 국민의 가슴마다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이날 법어에서 진제 대종사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 질병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며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동일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 동체대비의 비원(悲願)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이 한 가족이 되고 세계가 다정한 지구촌이 될 것"을 발원했다.

진제 대종사는 또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 가르침을 인용하며 "새해에는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해 모두가 보살심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화평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종단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그동안 종정예하께서 법력을 널리 그리고 깊게 드리워주셨기에

원로의원 등 종단 150명 동참해
진제스님 "동체대비 실천" 강조
원행 스님 "종교편향 바로 잡아
교단의 자존감회복 · 종단 화합"

종단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에도 도량 청정과 종도의 안녕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사람은 오고감이 있으나 법은 여여하게 상주하니 종정예하께서 밝혀주신 투철한 법안은 길이길이 후대 명성이요 지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자후를 내려달라고도 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정부 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으로 말미암아 정법수호 결의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승려대회와 불교도대회를 통해 정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종교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정예하께서 세간과 출세간을 진동시키는 큰 사자후를 내려주시기를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납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 모두는 종정예하와 원로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교단 자존을 회복하고 종단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며,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야외에서 봉행됐다.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학산 대원 대종사, 일응 지성 대종사, 지하 법융 대종사, 상월 보선 대종사 등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과 명예원로 송암 혜승 대종사, 금성 명선 대종사, 밀운 부림 대종사, 임담 의현 대종사 등이 참석했다.

또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2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4일(금)

제4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8일(금)

제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1일(금)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 3월 18일(금)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2022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 ~ 2월 28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원격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2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 2월 28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공모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오대산 사고 실록 환지본처 '청신호'

국회문체위, 1월 11일 회의열고
이광재 의원 발의 결의안 검토
다음회의때 처리키로 최종협의
문화재청 "대여전시" 검토 입장
월정사 콘텐츠 · 인력지원 방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당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이 환수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원도가 추진 중인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각회 부회장)이 대표발의한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관한 결의안'을 다음 회의 때 통과키로 했다. 다음 회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설 명절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63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제자리 찾기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 끝에 반환받았고,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도 이를 관리할 역량과 준비가 충분하다"며 "오대산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실록과 의궤를 마주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돌아온 실록과 의궤는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유산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대산 사고본 관련 보고를 진행한 문화재청의 입장도 '일부 수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에서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의 관리 총괄은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이며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유 동산문화재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본 대여를 통해 당해 문화재를 현지에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월정사 실록 · 의궤전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학예 인력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결의안이 이달 중에 채택될 경우 오대산 사고본 실록 · 의궤 환지본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만큼 정부 역시 국회 결의안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정사 관계자는 "오대산 사고본의 일부 대여 전시는 지금도 가능하다. 사중의 기본 원칙은 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는 것"이라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회 결의안 추진 등 일련의 관심과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월정사도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총지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종단50년사 · 종조일대기 봉정
우인 정사 "종단 화합에 진력"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인정사)은 1월13일 오후1시 서울 강남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2022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총지종의 기로진원은 만 65세 부터의 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5년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직 스승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70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스승에서 퇴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창종 반세기를 맞은 오늘의 신년하례는 어느해 보다도 의미있는 법석이라고 생각한다. 종단의 50년은 무엇보다도 생사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한 선대 스승님들의 교화와 수행 정진의 역사이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종심을 갖고 오직 신심으로 신행 생활을 이어온 교도들의 역사"라며 "종단은 이미 몇 년전부터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종조 선양사업과 기념 대작불사를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종조인 원정 대종사 제114주년 탄신대재를 맞아 종조 진영을 새롭게 모시는 등 종조전 정비를 통해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널리 받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불교총지종 50년사〉와 종조인 원정대성사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불공 잘해라〉의 봉정식도 열렸다.

총지종 관계자는 "2년여 만에 발간된 〈불교총지종 50년사〉는 반세기 종단 역사를 되짚어보며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밀교 경전 편찬과 의식 복원에 진력하며 한국 밀교의 토태를 마련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불공 잘해라〉 역시 종단 교화와 제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책은 불교총지종 사부대중 1500여명이 설판재자로 동참해 2억원 가까운 희사금이 모연돼 제작됐으며, 이후에는 종조 선양 및 종단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확대될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전통사찰법' 개정안 발의

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 운영을 위한 토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1천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전국 사찰 동시 타종으로 승려대회 시작

범대책위, 1월 13일 6차 회의
"승가위의 갖춰 여법히" 강조
대중 참회진언 · 석가모니정근
행진 · 차량 시위 등은 재검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자행돼 온 종교편향과 차별을 저지하고 한국불교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이번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한국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스님 5000여 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승려대회 봉행 구성과 식순, 예산 등 주요내용을 재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범대책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당위성을 알리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승려대회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지 않고 봉행할 것을 강조한 원행 스님은 "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국승려대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이 명종과 명고를 동시 타종하면서 시작된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육바라밀 의미가 담긴 여섯 번의 타종을 진행키로 했다. 경내 앞마당에 집결한 5000여 대중들의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후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부처님 전에 이날의 법석을 알리는 고불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어 전 대중이 합장하며 참회진언을 독송한다.

이후에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영상 시청, 봉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총무부장 삼혜 스님의 경과보고, 봉행위원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종정진제 대종사의 교시가 이어진다.

대회연설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함께 종단협의회, 전국선원수좌회가 맡는다. 외호대중 대표로 중앙신도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며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결의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대중들의 참회가 담긴 석가모니불 정근 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원문과 사홍서원으로 본 행사는 마무리된다. 본 행사 후에는 자유발언과 행진, 차량 시위 등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질서유지를 위해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신년하례법회에서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이 여법한 진행과 위법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 행사를 주문하셨다"며 "실천행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승려대회의 대변인은 기획실장 법원 스님이 겸직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5차 회의 때 배포를 결정한 '종교편향 ·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라는 문안이 담긴 현수막은 전국 2200여 사찰에, 종단협에는 320부 발송된 상태다.

범대책위는 1월 19일 오후 3시, 7차 회의를 통해 전국승려대회 주요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임은호 기자

"세종시민 문화향유 위해 힘쓰자"

조계종 · 세종시, 1월 13일 MOU
한국불교문화체험관 활성화 협력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원행 스님과 이춘희 시장은 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업무협약식'을 갖고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세종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로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내용물을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종시민의 문화향유와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체험관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종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체험관을 운영할 책임자인 비구니 스님을 선정해 관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시와 종단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좋은 터에 짜임새 있는 건물이 들어서 시민으로서 기분이 좋다"며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며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전 일원에 건립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명상과 사찰음식, 미술, 음악,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95㎡(약 1662평) 규모로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시민들을 위한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마련된다. 2017년 5월 불사를 시작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은호 기자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覺路山雲門寺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2년 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은사스님 추천서
3.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율주 일진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대학원 202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수행이력서
3.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해외 연수비지원 5)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정기실사 결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보 원각사지석탑, 10층 아닌 13층”

남동신 교수, 國博〈미술자료〉 100집서 주장

1902년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 “3중기단 위 10층 탑파” 발표
10층 공식화… 後 다층설 변화

아사미 발견한 ‘원각사비명’서 ‘13층’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돼
고유섭 등 조선학자 13층 고수

1962년 국보 지정서 10층 의결
“10층설, 日학자 조사연구 오류 창건 기록인 13층으로 회복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서울 원각사지10층석탑은 마지막 호불(護佛) 군주였던 세조가 조성한 최후의 도성 내 불탑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포털에는 원각사지10층석탑의 구성에 대해 “탑을 받쳐주는 기단(基壇)은 3단으로 돼 있고, 탑신부(塔身部)는 10층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탑의 10층설은 일본 학자의 오류이며, 창건 기록인 13층으로 명칭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지 〈미술자료〉 제100집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숭유억불의 기조를 유지했던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유일하게 서 있는 원각사지석탑은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비미(非美, 아름답지 않음)’의 존재였으나 19세기 이후 조선에 온 서양인들에게는 한양의 유일한 볼거리였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저술한 퍼시벌 로웰은 처음 원각사지석탑을 민가의 지붕 위로 올라가 촬영했으며, 영국의 유명 여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4차례나 조선을 방문해 “원각사석탑이 원래 13층이었는데 제일 상층부 3개층이 임진왜란 당시 석탑 아래로 내려졌다”는 구전을 채록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13층으로 인식됐던 원각사지석탑이 10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남 교수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일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세키노는 당시 한국 정부의 초빙을 받아 1902년 7월부터 62일 동안 한국 건축을 최초로 조사했으며, 이듬해 9월 원각사지석탑에 대한 짧은 논고를 사진과 함께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13층설을 속칭이라 치부하고 대신 “3중의 기단위에 서 있는 10층의 탑파”라는 10층설을 최초로 제기했다.

세키노의 가장 큰 문제는 ‘13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발견됐음에도 이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관으로 활동한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郞)는 1909년 무렵 〈속동문선〉을 열람하던 중 마지막 권에 실린 김수온 찬술 ‘대원각사비명’을 발견했다. 아사미의 발견으로 그때까지 판독 불가였던 원각사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문에는 ‘건솔도파 십유삼층(建率覩婆 十有三層)’이라고 기록돼 원각사지석탑이 본래 13층으로 조성됐음이 증명됐다.

일제 치하 조선 학자들도 원각사지석탑을 13층으로 보았다. 이를 제일 먼저 제시한 학자가 이능화다. 그는 원각사 관련 자료를 취합해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원각사지석탑이 13층이라고 봤다. 권상로, 최남선 같은 학자들도 한결같이 13층이라고 봤으며, 한국미술사학의 개척자인 고유섭 역시 13층설을 지지했다.

세키노도 잠시 13층설을 수용하나 1913년 동양미술 잡지 〈국화(國華)〉의 연재에서 ‘다층설’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이 ‘다층설’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세키노는 〈동국여지승람〉 〈대동금석서〉 〈원각사비〉에서 한결같이 원각사지석탑과 경천사지석탑을 13층으로 부르고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13층설’을 속칭으로 치부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너무 명백해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층설’인데 이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의 도움으로 지상에 있던 상층부 3개 층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면서 연구자들은 건립 당시의 원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학계에서는 다층설이 유지하면서도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13층설 지지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국보를 지정하며 원각사지석탑의 층수는 10층으로 공식화된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1959년 경복궁에 방치돼 있던 경천사지석탑을 복원하며, 해체 직전의 탑을 조사했던 세키노의 1904년 보고서가 독보적인 학술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문화재 지정 조사를 참여했던 김원용 국립박물관 학예관이 세키노의 보고서 등에 의존했고, 이를 토대로 탑의 명칭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일본 학자의 조사 오류로 인해 잘못 붙여진 ‘원각사지10층석탑’의 명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원각사비’는 세조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원각사지석탑을 건립했음을 생생히 증언한다. 이례적으로 3층의 기단 위 10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조성했을 뿐”이라고 강조한 남 교수는 “세조가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한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첫 단추는 원래 명칭을 회복하는 데 있다. 오류 위에 구축된 세키노의 10층설과 다층설을 이제 폐기하고 13층설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양주 회암사지’ 선정

문화재위원회 13일 의결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월 13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2017년 1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신규 등록하고 2019년 1월 ‘가야고분군’을 확대 등록한 이후 약 3년 만의 잠정목록 등록이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산구역에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등 보물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잠정목록 선정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유산의 성격, 명칭, 부도군과 사찰(유적) 구역 간의 연결성과 비교 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문화재위원회가 권고하면서 ‘잠정목록’ 선정이 의결됐다.

신성민 기자



문 대통령, 국민 통합 위해 종교계 역할 당부

종지협 대표 오찬 간담회서
원행 스님 “국민 상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계가 국민통합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월 12일 청와대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 문 대통령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9년 10월 21일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지협 대표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종교계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종지협 대표의장 원행 스님은 “금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종지협 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신행 강화·글로벌 교육으로 건학이념 구현

동국대 건학위, 1월 12일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학내 신행 강화와 글로벌 교육, 불교학 진흥을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1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회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캠퍼스 정각원·불교대학·불교학술원·경주캠퍼스 정각원·불교대학·불교학술원·경주캠퍼스 정각원·불교문화대학·불교사회문화연구원·의료원 일산병원 법당·경주병원 법당·산하학교 현황과 추진 사업 계획들이 발표됐다.

서울캠퍼스 정각원은 동국인 신행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운영되는 주중 교직원 법회를 ‘제2건학·불교중흥을 위한 교직원 법회’로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자율신행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의 발표에 따르면 불교대학은 대학원 내 영어트랙 불교학 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영미권 포교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은 디지털 대장경 조성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학교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이용해 건학이념을 구현에 나선다. 또 불제자 양성을 위한 포교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 종교단체 등록

국내 활동 10년 만에 설립
“자비희사 정신 알리겠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가 종교단체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건 없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가 2021년 12월 20일 한국에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대만불교자제종 자제공덕회 한국지부’(지부장 박동섭)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 묵묵히 자선활동을 펼쳐온 지 10년 만이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는 11년 전 대만에서 불교에 귀의, 증엄 스님의 제자가 된 박동섭 지부장이 한국에서 10년 전부터 활동을 전개 하면서 물꼬를 텄다. 2018년 한국에 첫 사무실이 개소되면서 자제공덕회의 한국 거점이 됐고 2019년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포교활동뿐 아니라 불자들의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이번 등록은 100여 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았기에 의미가 크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는 정식 단체로 성장해 활동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지부장은 “실천불교를 목표로 한국사회에 증엄 스님의 자비희사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며 “공식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한국에서 대만불교 자제종을 알리고 포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금강경 6만독 공덕 시각장애인에 회향

법산 스님, 1월 9일 금강경 6만독 회향기념법회 봉행

연화원 광림사서 시각장애인과 법회
회향을 기념해 '점자 〈금강경〉'보시
법산 스님 "마음 속 광명일길" 법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前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9일 6만독 회향 공덕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점자 〈금강경〉' 보시로 회향했다.

동국대 前 이사장 법산 스님이 1월 9일 6만독 회향 공덕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점자 〈금강경〉' 보시로 회향했다. 부처님 성도재일을 하루 앞두고 연화원 광림사에서 50여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한 〈금강경〉 독송 현장은 연화장 세계 그 자체였다.

연화원 광림사(주지 해성)는 1월 9일 '법산 스님 〈금강경〉 6만독 회향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후 2001년 11월 17일 〈금강경〉 독송 10만독을 서원하고 행주좌와 정진, 구랍 29일 밤 9시 통도사에서 6만독을 회향했다.

법산 스님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품수를 받은 어른스님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다. 스님이 제방 선방 수행부터 〈금강경〉 독송 등에도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장애인 포교의 중심인 연화원 광림사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문하는 것이다. 이번 6만독 회향을 기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덕을 나눈 것도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는 염원 때문이다.

스님은 모인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금강경〉 독송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요, 마음을 비우는 길이요, 참회하는 길이요, 자성을 찾아가는 꽃길"이라며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금강경,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금강경을 눈으로 읽고 손끝으로 읽는 이 곳이 작은 부처님 수행처"라고 함께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은 매회 장애인불자들을 위한 회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봉은사에서 진행된 3만독 독송 회향법회서는 첫 점자 〈금강경〉이 봉정됐으며, 은해사에서 진행된 4만독 독송 회향법회서는 첫 점자 불교염불집이 출간됐다.

해성 스님은 "1988년 최초의 장애인포교원인 원심포교당에서 수화교육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법산 스님"이라며 "불교계 곳곳에서 수화통역사들이 활동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안거기간에도 장애인 불자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주신다. 스님의 도움으로 봉은사 장애인 안내소를 비롯해 통도사 경사로 등 장애인 불자 신행에 대한 배려가 점점 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해성 스님은 이어 "저희 도반들도 최근 점자 〈금강경〉 만독을 했다고 한다. 큰스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정진해주시며 함께 몇독씩하면서 환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조영섭 씨의 기타연주 및 류정숙 씨의 수어노래, 능인 스님의 에어로폰 연주, 전원주, 김경애, 한강 씨의 축가공연 등이 이어졌다.

국제포교사회, 봉암사명상마을 세계 알린다

1월 11일 양 기관 홍보 업무협약

각산 스님 "간화선 세계화에 일조"
이재홍 회장 "글로벌 포교 일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한국 간화선 대중화의 중심지인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해외에 홍보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과 홍보 및 외국인 포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문경 봉암사 인근 8만 4000여 ㎡ 부지에 참선수행과 명상이 가능한 선방(명상홀)을 비롯해 리조트형 명상숙소, 참선수행자 전문 숙소 꾸띠(개인 수행처), 무문관, 그 밖의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된 간화선 대중화의 중심지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4월 20일 개원 예정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개원과 함께 1주일간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 영진 스님(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스님(대흥사 선덕) 등을 초청해 간화선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국제포교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행에는 출가자와 재가자 구분이 없다. 불교 지식인인 국제포교사들도 외국인들을 지도하며 함께 수행해 스스로의 스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은 "간화선 세계화와 불교 포교를 위해 봉암사 정신과 수행정신을 세계인들에게 전할 것"이라며 "국제포교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글로벌 포교와 시너지를 내 더 많은 이들이 한국불교의 매력을 알고 함께 정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1월 8일 전법회관에서 2022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대면과 비대면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포교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60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에 조석주 부산지부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60년차 신임 중앙회장에 기호 2번 조석주 후보가 당선됐다.

대불련은 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60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선거를 열고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 지부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선 구도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3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조석주 후보가 54명의 선거인 중 34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석주 신임회장은 2019년 대불련 부산지부 동아대 불교학생회에 입회 후 부산연등행렬, 템플스테이 등에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동아대 불교학생회장과 부산 지부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쪽방촌에 전해진 '까만 자비온정'

(사)자비명상, 1월 9일 영등포 쪽방촌 연탄나눔

자원봉사자 3000장 연탄 전달
27일 천도재 및 상담소 개소도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연탄을 실은 리어카를 직접 끌고 쪽방촌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손도 얼굴도 연탄재가 묻어 까맣지만 이를 전달하는 이들의 표정만큼은 하얗게 빛났다. 사단법인 자비명상(대표 마가) 산하 자비나눔공덕회는 1월 9일 영등포쪽방촌에서 쪽방촌도우미봉사회와 함께 '자비의 연탄나눔'을 진행했다. 총 3000장의 연탄나눔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공덕회 소속 50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원도 참석했다.

연탄나눔은 구랍 22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동지팥죽나눔을 진행한 마가 스님이 추위로 떨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사연을 접하며 이뤄졌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50원. 하루 2장의 연탄 조차 없어 강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을 위해 자비나눔공덕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 쪽방촌 입구에 쌓인 연탄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마가 스님은 "지난 연말 와서 보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았다. 추위에 떨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니 따뜻한 곳에 있으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상담소도 쪽방촌에서 곧 개소할 예정이다. 직접 이들의 사연을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 새해 다시 힘차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1월 8일 제60차 대불련 회장 선출 이후 첫 활동으로 연탄나눔에 참여한 조석주 회장은 "첫 경선이라는 과분한 관심 속에서 선출이 되어 어깨가 무겁다. 봉사를 통해 불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고 대불련 법우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하나씩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오늘 연탄나눔에 참여한 스님과 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새해 새로운 각오가 싹텄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명상과 자비나눔공덕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 영등포쪽방촌에서 설떡국 나눔과 함께 고독사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합동 천도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소도 개원한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제 12회 원효학술상, 제 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제4기 불교기관 지원사업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불교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연 2회 실시하는 4대 공모사업은 △2009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원효학술상'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불교 관련된 학술 · 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대원청년 불자 · 동아리상'에서 동아리상 부문은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제12회 원효학술상 접수기간은 2022년 2월3일부터~3월4일까지이며,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하면 된다. 시상 부문과 상금은 학자부문 저서(1명) 3000만 원, 특별상(약간 명) 1500만 원,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약간 명) 300만 원~800만 원이다.

제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장학금과 동아리 활동비용이 지원된다. 개인부문 대학생 · 대학원생에게는 300만 원, 단체 부문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에는 50만 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와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는 각각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월17일부터 2월11일까지다.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지원금은 불교 학술 부문과 콘텐츠로 나눠 지원된다. 선정된 학술 저서에는 500만 원~1500만 원, 번역서에는 300만 원~1200만 원이 지원된다. 불교 콘텐츠 부문은 만화 · 동화 · 불교 독립영화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실행에 500만 원~1200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다.

제4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지원은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모가 이뤄지며, 1개 기관마다 100~5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4대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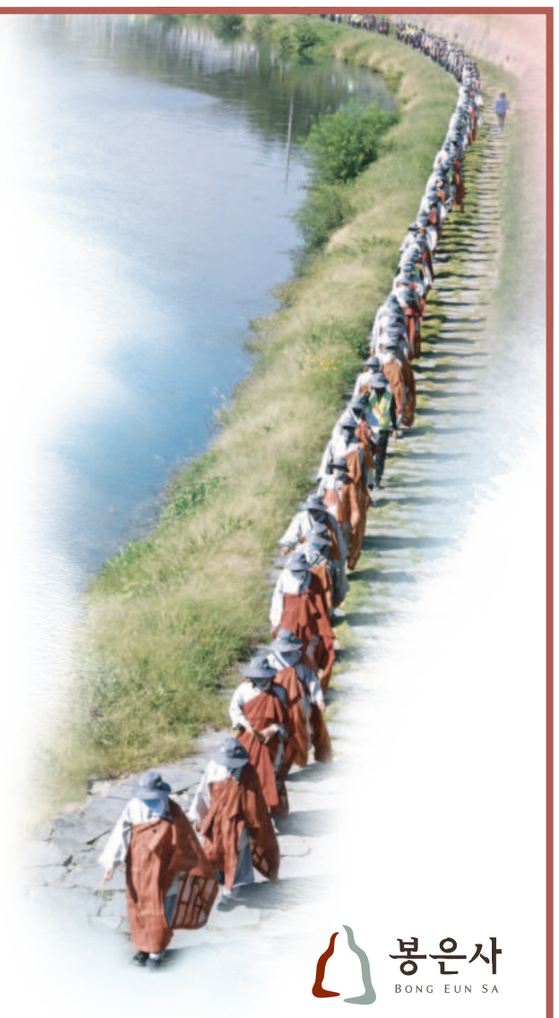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법화종, 신년하례서 "정상화 · 파사현정" 천명

1월 12일 의성 수도암서 봉행

종도의 통합과 미래 여는 법석
각급 스님들, "고난극복" 한뜻
원로의장 진파 스님 공개 참회

의성=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은 1월 12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암에서 임인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기념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법화종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종단 정상화를 위한 파사현정의 기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종도결집과 통합을 기반으로, 수년간 지속된 종단 혼란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모아냈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1월 12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암에서 임인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신년하례는 종단을 이끄는 각급 원로 · 중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정상화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진파 스님, 원로의원 오봉 · 혜각 · 혜성 스님,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기획실장 관효 · 총무부장 현묵 · 사회부장 현봉 · 감찰부장 해월 스님 등 집행부 임원, 중앙종회 부의장 서안 스님과 종앙종회의원 희공 · 일우 스님, 고시위원장 정규 스님, 교구종무원장 승일(강원) · 상백(부산) · 도수(충북) 스님, 교구종회의장 지우(강원) · 덕원(경북) 스님을 비롯해 거제, 부산, 통영, 서울, 인천, 제주지역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 도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종단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미흡한 부분은 배우고 개선해야 한다. 우리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종단 정상화와 발전은 총무원과 일부 스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범의 해인 올해, 범과 같은 기상으로 법화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종단을 위한 애종심으로 힘과 원력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을 바라보는 종도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종단 안정과 변혁으로 더 나은 법화의 100년을 열어가자는 간절함일 것"이라며 "올 3월 차기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몇 달 남지않은 서리 집행부는 서리체제를 마감하고 덕망있고 존경받는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이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종무일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원로의장 진파 스님이 지난해 해종세력과 함께했던 일련의 행보들에 대한 공개참회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진파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세세생생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참회했다.

이어 원로원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종단의 암울했던 문제점들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집행부 임직원들이 구종의 일념으로 삿된 무리들을 물리치고 종단 안정과 종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종단 원로로서 후학들을 경책하고 이끌지 못한 죄가 수미단을 넘나든다. 새해에는 바른 법에 안주해 파사현정에 물러남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를 대표해 신년인사말을 한 서안 스님도 "중앙종회를 대표해 대중참회를 하겠다"며 합장의 예를 올렸다. 이는 그동안 종단 혼란 속에서 중앙종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장이 해종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정상화를 저해하고 종단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참회로 분석된다.

이날 경북교구종무원장 서리 도광 스님과 마산교구 중앙종회 의원 지만 스님에 대한 종정예하 표창패도 수여됐다. 도광 스님은 제13 · 14대 경북교구 종무원장 재임 시 남다른 애종심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만 스님은 제19대 중앙종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으며 각각 해월 스님과 혜광 스님이 대리 수여했다.

한편 법화종은 신년하례를 나눔법석으로 회향해 눈길을 끌었다. 화환을 받지 않고 나눔기금으로 대체해 1000kg상당의 쌀을 의성읍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주형 의성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소외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신 법화종 여러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포교사단 부산, 신년 다짐 출발

1월 8일, 임원 및 운영위원 교육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임원 및 운영위원 교육을 진행하고 포교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송재린 단장은 새해 슬로건을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 로 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포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며 "포교가 곧 수행이다. 수행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미소와 밝은 얼굴이 곧 부처님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도법사 해륜 스님은 "포교사는 일반 불자들과 달라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공부하고 정진 수행하는 포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맞아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후원

1월 12일 신뇨엔 부산정사서 전달식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1월 12일 신뇨엔(眞如苑) 부산정사에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후원금은 총 500만 원 약정으로 2년간 나누어 후원하며, 어린이 교육 및 정서치료 등에 활용된다.

무지개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하 무지개 그룹홈)은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소규모 생활공간이다. 사회복지사가 엄마 역할을 담당하며 가정과 같은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무지개 그룹홈에는 4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정경 국원은 "이번 해 원주님께서 '자비 나눔을 크게 하라' 는 의미로 '애타(愛他)를 널리' 라는 신년 말씀을 내려주셨다"며 "정진 목표를 받고서 사회공헌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첫 나눔의 시작을 무지개홈 아동들을 위해 실현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정 스님 생가터 '마을도서관'으로 재탄생

해남군, 1월4일에 임시 개관
스님 서책 · 찻잔 등 전시해
조망대엔 불일암 의자 본뜬
의자 조형 조성 · 설치 예정



1월 4일 임시개관한 '법정 스님 마을도서관' .

'무소유' 의 가르침을 글과 삶을 통해 전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다 지난 2010년 3월 원적한 법정 스님 생가터에 스님을 기리는 마을도서관을 1월 4일 임시 개관했다"고 밝혔다.

'법정 스님 마을도서관' 은 해남군 문내면 법정 스님 생가터에 조성됐으며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반영해 설립됐다. 스님 생가터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화장실, 법정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조망대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에는 스님의 유언대로 유물을 최소화해 법정 스님 서책 14책, 법정 스님 찻잔 1점, 법정 스님 사진 2점 등이 전시돼 있다. 조망대에는 법정 스님이 앉았던 송광사 불일암 의자를 그대로 만든 의자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해남인문학 하우스 조성사업협회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미황사 前 주지)과 고현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본부장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이뤄졌다.

미황사 주지였던 금강 스님은 당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도서관 건립을 도왔다. 스님은 "법정 스님의 생가터 복원은 스님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 도서관을 만들어 마을에 선물하는 것이 스님의 유지를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후 제가 소장하고 있던 법정 스님의 출판 서적을 전부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황사 주지 직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도서관이 개관하게 돼 기쁘다"면서 "법정 스님 도서관이 법정 스님의 고향인 해남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님을 기억하고, 스님의 글과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관광객들에게 법정 스님의 사상과 전시품 설명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법정스님 생가터에 방문해 무소유를 되새기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것"이라며 "최근 개장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와 연계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흥사 여래좌상 보물지정서 전달식 봉행

1월 7일 신년맞이 행사 개최해
울산북구 첫 보물에 기대 높아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는 1월 7일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의 국가지정 보물 승격을 축하하고, 지정서를 전달받는 전달식을 경내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지 종현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상임부회장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회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 이동권 북구청장, 임채오 북구 의회의장, 이상헌 북구 국회위원과 불자대중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참석자 소개, 축사, 격려사, 인사말, 보물 지정서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은 "신흥사가 통도사보다 역사가 11년 더 깊다는 것을 알고 부임부터 100일기도를 했다. 보물 지정과 함께 어려운 분들이 신흥사에 와서 편안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다.

30년 전 신흥사 주지를 지낸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1991년 1월 신흥사 주지로 부임하니 부처님 불상은 누각 밑에 있었고 집들은 기울어져 있었다. 천년고찰격에 맞는 불사를 하고자 노력했다. 구법당인 나한전이 문화재 자료가 되었고 단청이 문화재가 되었다. 이는 울산의 보물이자 자랑"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년 전 주지로 계셨던 산옹 스님은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된다. 신흥사는 승병을 일으켜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었다. 전란 속에 여래좌상의 가피로 극복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보물 지정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울산시 북구 최초의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돼 영광스럽다. 보물 승격은 신흥사 스님과 신도, 주민 모두의 쾌거"라며 "향후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신흥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2019년 1월 11일 울산시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2021년 3월 문화재청 신청 후 구랍 22일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됐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넓적한 얼굴과 긴 눈썹에 작고 오똑한 코, 깊이 패인 입술 가장자리와 볼록한 턱을 가진 외형으로 온화함과 개성이 느껴진다. 재질은 규산염의 일종으로, 흰색 광물인 불석이다. 특히, 1649년 불석산지인 경북 포항 오천읍에서 돌을 채석해 조성하고, 배를 이용해 신흥사까지 옮겨온 사실이 발원문에 남아있다. 당시 불석 불상의 제작지와 운반경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송천스님, 문체부장관상 수상

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천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가 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2년 박물관 · 미술관인 신년교례회' 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송천 스님은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서 1989년부터 7년간 학예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박물관 관리와 학예업무를 담당했다. 박물관 개관 초기부터 통도사 본 · 말사 사찰을 중심으로 유물 실태 조사에 참여했으며, 1945년 이전에 조성된 조선 후기 불화를 촬영하고 조사해 〈한국의 불화〉40권을 집대성한 공로로 2007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남구불교聯, 새해 이웃나눔

1850만 원 상당 성품 · 성금 전달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이하 연합회)가 1월 6일 부산 남구청사에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설맞이 성금 및 성품 전달식' 을 진행했다.

연합회는 전달식에서 성금 및 쌀 2000kg, 어린이용 마스크 2만 개 등 총 185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성품과 성금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남구 내 복지관 4곳과 지역아동센터 17곳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 감사 능후 스님, 대각 스님을 비롯해 박재범 남구청장, 신춘심 문수사 신도회장, 김두찬 남구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지원 스님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이웃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따뜻한 온정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나누우리, 미얀마에 백신구입비 지원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구랍 29일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에 긴급 구호성금 1만 달러를 송금했다.

긴급 구호성금은 미얀마 국민들의 코로나 백신 구입비로 활용된다. 백신구입비는 (사)나누우리 이사 스님들의 개인 후원금과 해외구호자금 예산으로 긴급 마련했으며 군부 쿠데타로 힘든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달했다.

(사)나누우리는 지속적인 나눔과 강연회를 개최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상징 '세손가락 배지' 2000개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7월에는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현재 (사)나누우리는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미얀마 방문을 계획 중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로봇수트’ 입고 험난한 순례길도 ‘거뜬’

“험난한 순례 여정 든든한 동반자 만났다”

일본 로봇수트 ‘워크 메이트’
불교 순례길 활용 실험 눈길

박정현 객원기자

‘험난한 비탈길’. 성지순례길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이미지다. 이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선뜻 성지순례에 나서기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로봇기능이 장착된 수트를 입고 험난한 순례길을 거뜬히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월 10일 “불교 순례자들이 이제 그들의 어려운 여정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다”며 지난해 12월 13일, 가가와현(香川県)에서 첨단 로봇기능을 장착한 수트를 입고 시코쿠 순례길 중 72번째 순례길에 오른 불자들을 소개했다. 시코쿠 순례길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 구카이(空海, 774~835) 대사와 관련된 사찰 88곳을 순례하는 여정이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순례길에 오르는 것을 걱정했는데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60대 남편과 함께 불교 순례길을 걷는데 ‘로봇 수트’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아보는 실험에 참여한 50대 여성은 이같이 말하며 놀라워했다.

부부는 어깨와 허리에 모터 장치, 등에는 제어 장치가 장착된 수트를 입고 500m 비탈길에 올랐다. 머리에 쓴 전통 모자와 첨단 수트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두 사람은 로봇처럼 걸었다.

‘윙윙’ 소리와 함께 경사로를 쉽게 오른 남편도 “로봇수트 덕분에 숨이 차지도 않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었다”며 신기해했다.

이들의 순례 과정은 TV 프로그램으로도 방영됐다. 이들을 촬영한 담당PD는 아사히신문에 “마치 영화 ‘로보캅’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 같았다”며 감탄했다.

‘워크 메이트’(Walk Mate)라는 이 로봇수트는 도쿄첨단연구소(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했다. 2018년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물료치료용으로 사용됐지만, 실외용으로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랍 13일 로봇 수트를 입고 시코쿠 순례길에 나선 부부의 모습.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해당 수트를 개발한 도쿄첨단연구소의 요시히로 미야케(Yoshihiro Miyake) 교수는 “일반 사람의 평균 걷는 속도와 모습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팔 다리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며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로봇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동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추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사람들이 ‘워크 메이트’를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동일한 걸음 속도로 함께 여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험은 일본 민간항공사 ‘아나’(ANA: All Nippon Airways)에서 후원했다. 해당 회사는 ‘워크 메이트’를 순례길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돕는 기술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泰, 새해벽두 고위 출가자들 음주파티 논란

스님 3인, 1월 1일에 음주 적발
“내 몸 통해 조상에 제물 전달”
황당 변명에 싸늘한 국민 여론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를 자부해 왔던 태국에서 최근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해 횡령 등의 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는 태국 불교계에 새해부터 스님들이 음주파티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4일 태국의 ‘타이뉴스 크로스 봄버’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지난 1월 1일, 태국 북부 캄펭펫주의 경찰은 모 사원에서 지역 불교 지도자급 스님 3인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스님들이 모여 음주 파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적발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 받은 내용보다 인원이 적었기에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현장에서 음주를 증거할 만한 주류는 발견 되지 않았으나 경내에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고 밝혔다. 테라와다 불교가 중심인 태국에서 출가자의 음주는 중대한 파계로 인식돼 현재 교계 안팎으로 규탄 받고 있는 문제다.


음주파티로 논란이 된 사찰을 조사 중인 모습. 사진출처=타이뉴스 크로스 봄버

체포된 스님들은 승가법 집행관들에게 심문을 받았다.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된 한 스님은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어지는 조사에서 결국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또 체포된 스님들 전원이 알코올 검사에서 명백히 음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음주의 이유에 대한 심문에서 발언한 변명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된 스님은 “일반적으로 망자들을 위한 제사와 기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새해를 맞아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조상들을 비롯해 인연이 되는 영가들을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의 몸을 통해 영가들에게 술을 전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기에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승가법 집행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3인 전원에게 계율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멸빈조치가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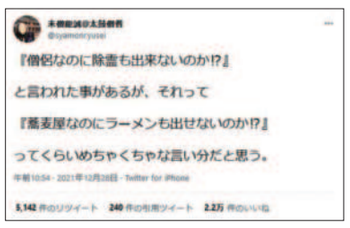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 불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한 불자는 “가뜩이나 젊은 층이 불교와 멀어지고 있고, 기존 불교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와중에 출가자들이 스스로 빌미를 만들고 있다”며 출가자들의 자질 저하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출재가가 모두 받아 지키는 기본 계율”이라며 “조상과 영가들을 위해 술을 마시고 축복했다는 변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 기자

日, 스님들이 듣는 황당한 질문들은?

SNS에 스님들 다양한 경험담 이어

“불교 인식 새로워지는 계기 되길”



화제의 시작이 된 류세이스님의 원 트윗. 사진출처=마이도나 뉴스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의 생활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흔히 대중매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스님들의 모습으로 추측되곤 하는 출가자의 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문이 화제다. 일본의 스님들이 SNS를 통해 공개한 황당한 질문과 상황을 1월 4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SNS인 트위터에 한 스님이 글을 남긴 것에서 시작됐다. 진언종 소속의 이와타 류세이 스님은 구랍 28일, “일전에 누군가에게 ‘스님인데 퇴마도 못하는 건가?’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이건 ‘메밀국수집인데 라면도 못 만드는 것인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며 5000회 이상 공유되었고 250회 이상 인용되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류세이 스님의 글을 인용한 한 스님은 “이런 질문은 흔하게 듣는 질문이다. 술이나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은 이제 공기처럼 흘러가듯 대응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다른 스님은 “요즘은 질문도 발전했다. ‘스님이 SNS를 해도 되는가?’, ‘스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하는 질문들도 심심찮게 받는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도 스님의 글을 인용하면서“목사들도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어느 종교나 성직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세이 스님은 “내 글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줄은 몰랐다.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출가자는 ‘령’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댓글과 인용글 덕에 좋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자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에 대해 “옛날 한창 심령방송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종교인들이 출연하면서 ‘스님이면 퇴마를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본래 퇴마라는 말이 없다. 그러나 부탁을 받으면 영가를 달래는 기도를 정성껏 올리는 것이 퇴마로 오해받는 것 받다”고 말했다.

현재 류세이 스님은 이번 일을 주제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의 생활과 체험담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번 일로 스님과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 기자

中, ‘불상 강제 철거’ 소식 전한 스님 체포

‘드라고 마을’ 소재 30m 불상 철거

소식 외부 노출하자 체포 뒤 학대

중국 쓰촨성 지역 당국이 루훠현에 소재한 30m 높이의 불탑이 강제 철거된 사실을 외부에 노출한 혐의로 티베트 승려들을 체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월 10일 티베트 현지 정보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티베트족 자치주 간쯔(Kardze)의 드라고(Drago) 마을에 있는 불상이 지난 11월 너무 높게 세워졌다는 이유로 관료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티베인들이 자발적으로 4000만 위안(한화 약 75억 2080만원)을 모아 2015년 세운 것이다. 당시 쓰촨성 당국도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RFA는 “현지 스님들과 티베트인들은 그 철거 과정을 강제로 직접 목도해야 했다”며 “이는 티베트 특유의 고유문화와 종교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 압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드라고 마을 가덴 남갈링 수도원의 주지 펠가(Pelga) 스님 등 11명은 철거된 불상 사진을 외부에 노출했고, 쓰촨성 당국은 해당 스님들을 즉각 체포했다. 여기에 일반 티베트 시민 2명도 이들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쓰촨성 관리들은 그들을 체포하며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쓰촨성 당국은 스님들과 시민들을 수감하는 동안 학대하고 음식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스님은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한 쪽 눈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기자

輦(연) ∞ 창립 40주년 ∞ 幡(번)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닷집번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

“당신의 춥고 허기진 속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



밥 한술, 온기 한술
원경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길을 오르면 예쁜 암자가 하나 있다. 이 도량에 들어서면 큰 보호수와 너럭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도심속에 아름다운 절 ‘심곡암’이다. 1998년 제 1회 산사음악회 취재를 위해 심곡암에 오른 적이 있다. 올라가는 길이 제법 가팔라 사찰 셔틀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난다. 불교계 최초로 전통 사찰서 열린 현대적인 사찰음악회였다. 너럭바위 위에서 진명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사회를 보며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케빈컨의 뉴에이지 음악이 흘러나와 많은 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오색 가을 단풍이 휘감은 아름다운 심곡암처럼 감미로운 선율이 도량에 울려퍼져 관객들을 모두 취하게 했다. 가을이 되면 심곡암이 생각나는 이유다.

그 이후 23년째 북한산 형제봉 골짜기에 위치한 심곡암의 주지를 맡고 있는 원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이 〈밥 한술, 온기 한술〉이란 제목의 신간을 펴냈다. 제목에서 금방 느끼듯이 원각사 무료급식소 운영자이기도 한 저자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기록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아름다운 마음이 조각보처럼 형형색색 모여 있는 곳. ‘사랑’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곳, 여기가 바로 원각사 무료급식소다. 온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마음자리를 내어주는 봉사자들, 급식소 현장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풍경들을 책에 담았다.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저자와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 심곡암 주지로서의 일상과 사유를 담아낸 글들은 독자들에게 소박하지만 온기 가득한 한 상을 대접받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심곡암의 사계절, 법정 스님을 비롯한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 이야기, 그리고 그간 깨달아 온 삶의 지혜와 통찰 등 한 명의 수행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깨달음 또한 진솔하게 풀어냈다. 심곡암은 저자에게 일상의 터전이자 수행의 처소이므로 그곳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 원경 스님은 이 책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혹은 지속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나마 사랑과 연민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며 사랑하며’ 내면의 덕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 같은 곳이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사회복지 원각)가 아닐까 싶다”며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썼다. 내면의 허기를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이 책이 누군가의 빈 속을 든든히 채워 주는 따뜻하고 푸짐한 한 상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원각사 무료급식소 운영자인 저자 원경 스님(사진 왼쪽)이 급식소를 찾은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 1부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라는 말〉을 통해 저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맡은 과정과 이곳서 일어난 다양한 풍경을 기록했다. 대중들과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복지 불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저자에게, 무료급식은 단순히 ‘먹고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저자는 밥이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 수단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임을 책에서 강조한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모름지기 음식에는 ‘온기’가 있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낀 연유에서다. 추운 날씨에 먹는 따스한 음식은 굳은 마음마저 녹이는 매개체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라는 말과 함께 급식소를 찾은 이들에게 음식을 건넨다.

>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 이야기 담아
> 법정 스님 등 향기로운 인연담 이야기도
> 수행서 깨우친 인생의미에 대한 글 소개”

맑고도 향기로운 인연의 소중함

심곡암이 저자의 일상 터전이자 수행 처소로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심부라면, 그 곳을 지탱하는 토대에는 맑고도 향기로운 수많은 인연 속에서 얻은 선물들로 가득하다. “저마다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더라도 항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연민을 나누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감동과 깨달음이다. 그래서인지 제 2부 〈심곡 일지〉에서는 유독 세 편에 걸쳐 정성스레써 내려간 ‘법정 스님’과의 일화가 눈에 띈다. 저자가 LA에 있는 고려사 주지로 지내던 시절, 이곳을 방문한 법정 스님과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 행운을 얻은 그는 스님과 한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산책길에 동행하며 가까이서 스님을 모시는 귀한 경험을 했다. 법정 스님이 머물다 가신 자리는 늘 맑고 청결했고, 또 향기로웠다. 자신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깨우침을 실천한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그의 수행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심곡암에 20여 년째 머물면서도 참 많은 인연을 맺어 왔다. 이곳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물론, 심곡암 곳곳에 핀 꽃들과 나무, 바위틈에 핀 들꽃까지 모든 자연물과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누었다. 그렇게 내면에 간직한 사랑은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올랐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심곡암까지 오는 해맑은 표정의 보살님, 아직도 가슴 한켠에 애틋하게 자리 잡은 부모님, 싱그러운 미소로 심곡암을 찾아온 청년 불자들….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의 모습은 제각기 달랐으나 저자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만이 덧없는 세월 속에 피는 꽃같이 선명하다”라고.

항상 배우고 공부하며 늘 새롭게 태어나는 삶

제 3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는 그가 이제껏 살아오며 깨우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글을 모았다.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대하는 지혜,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녹여냈다. “자신의 생활을 덜어 내어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귀한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시련과 맞닥뜨리는 힘을 키우는 방법, 요즘과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삶의 태도 등이 저자의 경험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행자로서의 일상과 사유들을 소박하고도 진실되게 담아낸 〈밥 한술, 온기 한술〉은 코로나로 피로감이 겹겹이 쌓인 우리의 상실감들을 치유해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원경 스님**은?

전남 순천 송광사서 석림 현호 화상을 은사로 득도. 동곡 일타 스님께 사미계를,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산 범어사서 자운 성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보광선원서 첫 하안거 이후 제방선원 수선 안거를 지냈다. 중앙승가대학 8회로 졸업했으며, 미국 LA송광사 분원인 고려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북한산 ‘심곡암’ 주지로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도 겸하고 있다.

2015년, 스무 해 가까이 이어져온 배고픈 어르신들을 위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사회복지 원각)’가 운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출가수행자로서 당연히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기사구제(飢死救濟)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념으로 선뜻 급식소 운영을 맡았다. 이 외에도 1998년 불교계 최초 전통사찰 속 현대적 사찰음악회를 연출,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심 속의 아름다운 절, 심곡암’이 개최하는 〈산사음악회〉를 23년째 이어 오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시인 회원으로 시집 〈그대, 꽃처럼〉과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를 출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손수레에 도시락을 싣고 봉사자 몇 분과 함께 주변 노숙자들을 찾았다. 냉기에 절여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네는 도시락에 아직 온기가 남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먹는 따스한 음식은 소화에도 이롭지만 굳은 마음마저 녹이는 법이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모름지기 음식에는 ‘온기’가 있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라는 말〉 中에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큰 폭풍 같은 시련이 당장은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겨 내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여 웬만한 생채기에는 끄덕하지 않는 힘이 길러진다. 살면서 태풍 같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맞닥뜨릴 힘을 키우는 편이 좋다.

〈태풍 전야〉 中에서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Jogye Order of Buddhis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돌 아닌 보석에 새긴 백제인의 부처님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5월 8일까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3D프린팅 재현
백제 지역 돌산지 정보, 가공도구 등
건축 자재, 결구에 쓰인 장치돌 소개

돌을 보석처럼 다룬 백제인의 감성과
뛰어난 석조 테크 놀로지 조명 · 경험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 3D프린팅 재현 (3D프린팅–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팀)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제 시대의 석불과 석탑 등을 통해 백제인이 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사비고고학연구회(회장 정훈진)와 함께 5월 8일까지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를 개최한다. 백제 브랜드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백제인이 어떻게 돌을 다루었는지를 주제로 한 것으로, 석조 테크놀로지를 조명한다.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 중 3부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에서는 돌로 만들어진 불상과 탑을 주제로 다룬다. 먼저 불상 코너에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던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시된다.

또한 하나의 큰 바위 4개 면에 불상을 새긴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 이 전시되는데, 현재 예산군 화전리에 남아 있는 불상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굴하여 깨어진 상태로 보관 중이던 불두(佛頭) 편 등을 접합해 3D 스캔과 프린팅 작업으로 원형을 재현해 선보인다.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 은 1936년 출토되었으며, 전체 높이 13.5m로 백제 불상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소발(素髮)의 머리에는 작고 팽이 같은 육계가 있으며, 초기 중국불상의 영향이 강하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띠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복스러우며 만면에 미소가 넘친다. 두꺼운 옷에 싸여 몸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고, 발의 표현도 없으며, 좁은 어깨, 양손이 배를 맞잡고 있는 모양 등은 그대로 이전의 방식이다. 어깨에 걸쳐 입은 납의는 매우 두꺼우며 앞가슴이 조금 터진 곳에 만(卍) 자를 새겼다. 계단식 옷주름을 그리며 내려오는 옷자락은 대좌를 덮어 상현좌를 만들고, 이 상현좌의 옷자락은 소박성과 탄력성을 지닌 사실감이 넘친다. 대좌는 옷자락에 거의 가려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그냥 사각형으로 깎아 만들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있는 백제시대 불상이다. 1983년 발굴된 불상은 돌기둥 4개의 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백제시대의 유일한 사면불이다. 사면불은 일명 '사방불' 이라고도 하는데,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사방 정토를 관장하는 신앙의 대상인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을 뜻한다.

남면에는 본존불로 생각되는 여래좌상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머리 부분은 서면과 북면만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 따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손은 모두 없어졌다.

4구의 불상은 모두 양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으며 가슴부분에 띠매듭이 보인다. 옷주름이 매우 깊고 가슴 아래에서 U자형으로 겹쳐있다. 광배는 원형으로, 불꽃무늬,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백제 특유의 양식이다.

탑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국립부여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전시하던 부여 구아리 출토 심초석을 선보이며, 심초석과 결합되는 석재 뚜껑을 비롯해 탑 조성에서 보이는 사리장엄구의 형태와 위치 변화를 다루었다. 특히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기술발전 과정이 백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백제의 탑 조영 테크놀로지가 신라와 일본은 물론 고려시대의 석탑 조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부 '백제인, 돌을 조각하다' 에서는 백제지역의 풍부한 돌 산지 정보와 돌을 가공한 도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백제의 생활에서 사용한 다양한 돌 조각품을 다룬다. 여기에는 투박하지만 단순함이 특징인 절구를 비롯해 용기와 추 등 도량형으로 표현된 척도에 이르기까지 백제인의 손에서 탄생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보여준다.

2부 '백제인, 돌을 조립하다' 에서는 마치 조립블록과 같이 돌에 난 홈과 턱으로 구성된 건축 자재를 비롯하여 돌과 돌을 결구(結構)하는 데 쓰인 장치돌을 소개한다. 그리고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을 비롯한 백제의 주요 유적이 작은 돌 하나 하나가 모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코너에서는 도수관(導水管, 물을 끌어오는 장치)을 비롯하여 부여 나성에서 출토된 명문(銘文) 성돌들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흔한 돌을 보석과 같이 다룬 백제인의 시각과 뛰어난 석조 테크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전시실 해설서비스와 단체관람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의 주요 전시품에 대한 IoT 기술을 도입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활용한 비콘과 스마트 기기를 연동한 전시안내 서비스로 위치 기반의 전시품 자동안내 지도, 추천동선, 스탬프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041)833-8562.

'역병을 물리치는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1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임인년 호랑이해 설날을 앞두고 호랑이 관련 판화자료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한 · 중 수교 30주년 설맞이 특별전 '역병을 물리치는 동 아시아 호랑이 판화'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티베트, 베트남 등의 목판화로 제작된 호랑이 관련 판화와 판목, 호랑이 부적, 종이오리기로 만들어진 호랑이 전지, 호랑이 관련 우키요에와 호랑이 관련 전적 류 등 150여 점의 판화자료를 전시한다.

호랑이 판화는 집안의 대문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각종 재난과 역병,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로 쓰여 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에서도 같은 용도의 호랑이 그림을 부적용 판화로 만들어 정초에 대문이나 집안에 붙이고,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자료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자료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한 삼재부 판화


김홍도 맹호도석판화(한국,근대).

와 금란장국부를 비롯하여, 중국 도교의 창시자인 장도릉이 호랑이를 타고 칼을 든 모습으로 모든 역병을 물리치는 부적인 장천사 진택(천사진택) 등이 있다. 천사진택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널리 쓰였다.

한 · 중 수교 30주년이 시작되는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장천사 진택 등 중국 호랑이 관련 자료가 40여 점이나 소개되고 있어, 한국과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호랑이를 통한 문화교류가 다양하게 있어왔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교육 프로그램으로 호랑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다양한 전통판화 교육도 마련된다. 박물관은 또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호랑이 판화 인출체험도 무료로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



해금연주가 성의신 음반 발매
333장 한정판 LP '해금소리'
'아지랑이' 등 엄선 10곡 수록

불교음악과 수행력을 바탕으로 해금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의신이 1월 21일 해금연주 LP '해금소리' 를 발매한다.

이반 음반은 성의신〈사진〉이 KBS국악관현악단 36년 활동을 회향하는 음반으로, 40여 년간 해금연주자로 활동한 성의신이 엄선한 연주곡 10곡을 담았다. 지난 2021년 초 정년퇴임한 성의신은 36년간의 관현악단 생활을 마감한 자신과 그간 자신의 음악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특별히 333장 한정판으로 발매한다. 당초 계획했던 300장에 '33관음', '33천' 의 의미가 더해졌다. 음반발매에 앞서 1월 20일까지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음반의 SIDE A에 실린 5곡 중 '아지랑이', '구름에 걸린 달', '겨울아침', '어느 봄날의 꿈', 4곡은 국악 음반으로는 드물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불교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성의신을 세상에 알렸던 1집 앨범 'Moon in the Cloud' 의 수록곡이다.

SIDE B에는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성의신이 가장 아끼고, 본인의 음악적방향성을 '불교음악' 으로 굳힌 4집 앨범 '미래회상' 에 담겼던 '세령산', '타령', '해금상령산풀이' 를 비롯한 5곡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세령산' 의 연주는 양금, 소금, 시타르와 함께 연주했고, '타령' 에서는 피아노, 첼로, 퍼커션과 협연해 국악과 불교음악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해금상령산풀이' 는 해금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성의신이 구성하여 발표한 곡이다. 박재완 기자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0

▶ 51회 예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는 연회에서 못다 한 얘기를 정원에서 주고받는다. 그때 비베깐난다 사문과 아쇼까가 합석한다. 그들은 비베깐난다 사문으로부터 붓다에게 짧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된 바히야 다루찌야의 얘기를 듣는다.



숫빠라까 출신 뿐나, 붓다 제자가 되다

아쇼까 순행단 일행은 숫빠라까 상인수장 저택에서 묵기로 했다. 경비대장은 군사 두 명을 데리고 아쇼까가 묵게 될 방을 미리 가서 점검했다. 방은 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옷장, 책상, 탁자와 의자 같은 가구들의 조각이 정교했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아쇼까는 저택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상인수장의 저택은 'ㅁ' 자 형태로 가운데는 정원이었다. 경비대장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이 머물 방도 살폈다. 비베깐난다 사문의 방 역시 2층으로 정했다. 데바 상인수장 방은 비베깐난다 사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데바는 바로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황금야자수가 우뚝우뚝 서 있는 정원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연회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였다. 보름달 달빛에 황금야자수 이파리들이 반짝였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데바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아주 흡족해하셨소. 더욱이 정찰조 군사를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 저 역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소."

"해적의 만행이 지나쳐서 그랬던 것이오. 그런데 부왕께서 오늘 뜻밖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좀 전에 아쇼까가 내렸던 명을 상기하며 말했다. 수나빠란따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권을 그에게 주었으며 다른 지역의 교역은 데바와 상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부왕님께서 명하셨으니 지금보다 더 큰 성업을 이룰 것 같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데바가 교역분소를 숫빠라까에 두는 것을 허락했다. 데바 역시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웃자인에 교역분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마우리아국에 복속된 소국들끼리 교역하는데 거물급 두 상인수장이 상생의 첫발을 뗀 셈이었다. 그때 황금야자수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데바는 단번에 비베깐난다 사문인 것을 알았다. 데바가 일어나서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갔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비베깐난다 사문을 서서 맞이했다. 데바가 말했다.

"비베깐난다 사문님이오. 사문께서는 숫빠라까를 오시고 싶어 했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목소리를 높여 반색했다.

"사문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수장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하인이 대리석의자 가운데에 놓인 탁자에 따뜻한 짜이가 담긴 주전자와 잔을 들고 왔다. 하인이 잔에 짜이를 따르자 재스민 향이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하인이 짜이에 재스민 꽃가루를 넣어 끓였기 때문이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사문이시여, 언제든 숫빠라까에 오십시오. 저희 집이 편안하시다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승은 이곳에 절터가 있다면 찾아가서 머물면 됩니다."

비베깐난다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호의를 거절하자 데바가 말했다.

"사문님께서는 오늘은 별 수 없이 이곳에서 머물지만 원래는 절이나 절터가 아닌 곳에서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바르마티강 강가에 뿐나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지만."

비베깐난다 사문이 '뿐나라마'란 소리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났다. 자신이 흠모했던 뿐나 존자의 이름을 딴 사원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뿐나라마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지대 천민들이 사는 곳에 절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뿐나라마라고 부릅니다."

데바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순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기회가 온다면 고타마 붓다의 제자인 뿐나 존자의 고향 숫빠라까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데바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물었다.

"고타마 붓다의 제자였던 뿐나 존자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2백 년 전의 일입니다."

하인들이 큰 청동 화로와 숯을 가져와 불을 피웠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사용하는 화로였다. 화기가 금세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하인들이 다시 세 사람 앞에 놓인 잔에 짜이를 따랐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사문이시여, 뿐나 존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수장님들을 위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청동화로불의 열기에다 뜨거운 짜이를 마신 세 사람은 차가워지는 밤공기를 잊었다. 보름달은 중천에 떠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검은 얼굴이 달빛에 더욱 번들거렸다. 이윽고 비베깐난다 사문이 설법하듯 합장한 뒤 출가 전의 뿐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뿐나는 아버지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신분 때문에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뿐나를 멸시했지요."

형제들은 뿐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다. 뿐나는 알거지나 다름없었지만 상인이었던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다. 아버지를 닮아 언변과 수완이 좋은 뿐나는 돈을 모아서 곧 독립했다. 작은 자본으로 전단향나무 장사를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 아버지처럼 해외무역을 해도 될 만큼 자산가가 되었던 것이다. 뿐나는 배를 타고 이집트도 가고 오만이나 페르시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 해상무역으로 거부가 된 뿐나의 명성은 꼬살라국 사왓티까지 소문이 났다. 어느 날 꼬살라국 사왓티 상인들이 뿐나를 찾아왔다. 뿐나의 큰 배는 웬만한 파도나 풍랑에도 견디는 상선이었다. 드디어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과 함께 배에 교역품을 싣고 숫빠라까를 떠났다.



뿐나는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항해라고 생각했다. 해상무역이 부를 축적하기에는 용이했지만 한번 떠나면 몇 달 간의 항해를 견뎌야 하는 고단함, 해적의 출현과 갑자기 맞닥뜨리는 풍랑 등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선이 숫빠라까 항구를 떠난 지 며칠 만이었다.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왓티 상인들은 아침저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무언가를 소리 내어 읊조리곤 했다. 그날 밤,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물었다.

"함께 모여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수닷타 장자의 권유로 고타마 붓다께 귀의한 자들입니다."

뿐나는 수닷타 장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므로 상인들의 말을 믿었다. 뿐나가 물었다.

"고타마 붓다는 어떤 분이오?"

"사끼야족으로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일 때 출가하여 6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해버린 그분을 고타마 붓다라고 부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요? 고타마 붓다께서는 어떻게 해탈했다는 말이오?"

"예, 우리들은 오직 고타마 붓다께서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결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고타마 붓다만이 생로병사를 해탈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타마 붓다는 어디에 계십니까?"

"코살라국의 사왓티 근교에 있는 제타숲에서 수닷타 장자가 지어 바친 사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왓티 상인들로부터 고타마 붓다의 이야기를 들은 뿐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결심했다. 거래로 정신이 없었던 바빌론에서도 그의 마음은 확고부동했다. 숫빠라까로 돌아가서는 고타마 붓다가 머물고 있는 사왓티로 가기로 작정했다. 고타마 붓다를 한 번 만나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만 같았다.

몇 달 후. 사왓티 상인들과 함께 숫빠라까로 돌아온 뿐나는 곧 자신의 저택과 땅은 믿을 수 있는 친척에게 맡기고 낙타와 말, 배 등은 그동안 자신에게 헌신했던 집사와 충직한 하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 뒤 사왓티 상인들을 따라서 고타마 붓다를 만나기 위해 꼬살라국으로 떠났다. 마침내 뿐나는 사왓티에 도착해서 수닷타 장자부터 만났다. 평소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수닷타 장자는 뿐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소. 어서 오시오. 사왓티에 교역소라도 내려고 오셨습니까?"

수닷타 장자보다 어린 뿐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번에 온 까닭은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자 왔습니다. 수닷타 장자시여,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오. 고타마 붓다께서는 지금 제타와나(기원정사)에 계신다오."

두 사람은 고타마 붓다가 머물고 있는 제타와나로 갔다. 마침 고타마 붓다는 우안거를 나기 위해 제타와나에 와 있었다. 수닷타 장자의 안내로 고타마 붓다를 친견한 뿐나는 그날부터 제타와나에서 머물렀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퍼부어 사왓티와 제타와나를 오갈 수 없었다.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지혜가 뛰어났던 사리뿟따가 뿐나를 각별하게 배려해주었다. 결국 뿐나는 우안거가 끝나기도 전에 탐진치를 여읜 아라한이 되었다. 드디어 우안거가 끝나자 각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떠날 날이 되었다. 그때 고타마 붓다가 뿐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붓다시여, 저는 고향인 수나빠란따국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그곳 사람들이 몹시 사나운 기질을 지녔다고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했다.

"뿐나여, 그곳 사람들 중에는 거친 이들이 많다고 하던데, 만약 그들이 너에게 이교도라고 조롱하거나 험담한다면 어찌 하겠느냐?"

"붓다시여,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주먹으로 나를 때리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다시 물었다.

"뿐나여, 만약 그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린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나에게 더러운 흙덩어리를 던지지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에게 흙덩어리를 던진다면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뿐나여, 만약 그들이 몽둥이로 너를 두들겨 팬다면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칼을 가지고 나를 해치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뿐나의 인격과 전법의지를 믿고 허락했다. 무엇보다 묻는 말에 물이 흐르는 듯 대답하는 그의 설법 능력이라면 수나빠란따국에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것이다. 고타마 붓다의 예감대로 뿐나는 수나빠란따국 숫빠라까로 가서 경이롭게 전법을 했다. 예전 자신의 땅을 뿐나라마로 조성한 뒤, 우안거 기간에 5백 명을 불법에 귀의시켰다. 5백 명 중에는 해외무역을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집사와 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뿐나는 우안거가 끝나갈 무렵 알 수 없는 중병으로 눈을 감았다. 불행한 일이었다. 뿐나의 죽음은 숫빠라까 불교가 일찍 쇠퇴한 이유가 되고 말았다.〈계속〉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

「원효센터」를 개설하여 오로지 원효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는
공파 스님이 펴낸 『대승기신론 소별기』 해설서!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5 (전7권 예정)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마명보살의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정수와 핵심을 담은 기본 교과서이다! 원효대사의 『해동소』는 기신론을 일심으로 풀어내 수많은 주석서 중 으뜸으로 꼽힌다! 공파스님의 『혈맥기』는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쉽게 풀어낸 최고의 해설서이다!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그러면서도 『기신론 소별기』의 정수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양장/1권 392쪽, 20,000원
2권 424쪽, 20,000원/3권 384쪽, 20,000원
4권 428쪽, 20,000원/5권 468쪽,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❷ 지루가참(支婁迦讖)

▶ 한줄 요약
동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세고와 지루가참이 바로 '양대 역경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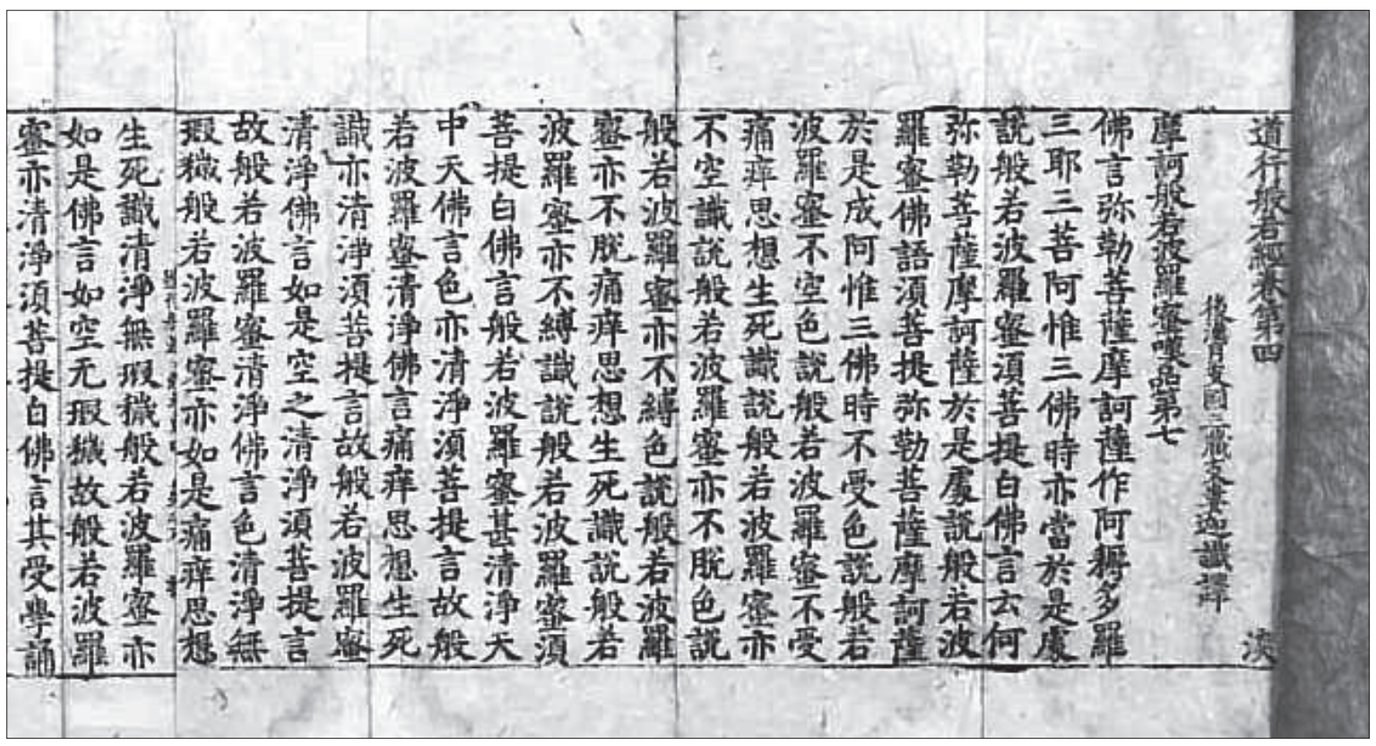
중국에 본격적으로 부처님 혜명 펼쳐

동한(東漢) 시기 환제에 이르러 황권에서는 안세고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불경을 번역하는데, 그것은 중국 민중에게 불교를 이식(移植)하여 새로운 통치이념을 수립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황권에서 안세고를 주목하였던 까닭은 당시 시대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서한(西漢) 황권은 법가(法家)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진(秦)의 가혹한 법치를 해소하고자 살인, 도둑질, 상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법령만을 남기고 모든 법률을 폐기하였으며, '무위이치(無爲而治)'를 제창하는 도가의 황로학(黃老學)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황로학에 입각한 통치는 이른바 '문경의 치[文景之治]'라고 칭하는 문제와 경제의 태평시대가 4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도가 사상이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삼투되었다. 그러나 황로학 역시 한계를 노정하여 무제(武帝)에 이르러서는 백가를 배척하고, 오직 유가만을 숭상하는[罷黜百家, 獨尊儒術] 통치이념을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학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에 의하여 사라진 유가경전을 복원하면서 경학(經學)이 주류를 이루었고, 경학은 주석(注釋)에 매몰되면서 다만 관직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서한은 망하게 되었다. 한편 황로학은 황로도(黃老道)로 변용되면서 점차 종교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중국 민중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도가 사상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서한을 계승한 동한에서는 비록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표방하지만, 황로도의 신선방술(神仙方術)이 유행하였으며, 더욱이 황제와 황실에서 이를 숭상하여 많은 방술사들이 조정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에 유행했던 신선방술은 주로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추구하였으며, 노자(老子)는 이미 우화등선(羽化登仙)한 '신(神)'의 지위에 올랐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생불사에 이르는 방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취구호흡(吹呴呼吸)', '토고납신(吐故納新)', '웅경조신(熊經鳥伸)' 등의 '수기(守氣)'를 통한 양생법이다. 그런데 안세고가 전한 '선수학'은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경전이 바로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인데, '안반수의'는 바로 '수식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사선정(四禪定)에 들면, "천지를 통제하고, 수명(壽命)을 길게 하며, 신덕(神德)을 떨치고, 천병(天兵)을 물리치며, 삼천(三千)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시간에 옮겨가며, 팔부사의(八不思議)를 행한다."(康僧會, 〈安般守意經〉, '序')고 했다. 그에 따라 당시 안세고의 선수학은 신선방술과 유사하면서 더욱 뛰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황권에서는 서역의 불교에 아비다르마와는 차별적인 대승불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승경전도 또한 번역하게 된다. 이러한 대승경전의 번역을 바로 지루가참이 하게 된다.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

지루가참은 흔히 줄여서 지참(支讖)이라고도 한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5에서는 건화(建和) 원년(147)에 낙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는 안세고보다 1년이 빠르다. 그러나 지참이 번역한 시기는 광화(光和, 178~183)와 중평(中平, 184~189) 연간이다. 따라서 건화 연간에 번역을 시작한 안세고보다 훨씬 후대라고 할 수 있다.

지참의 전기는 안세고와 같이 〈고승전(高僧傳)〉 권1과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3에 "본래 월지국(月支國) 사람이다. 행실이 순수하고 깊이가 있으며, 성품이 개방적이고 영민하였다. 법과 계를 받아 지녀서, 열심히 정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여러 경전을 암송하였으며, 법을 선양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경전을 번역한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동한 말에 전란 등의 극심한 혼란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지참이 번역한 경전은 전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4부 27권(혹은 15부 30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등의 대승에 속하는 경전들이다.

〈출삼장기집〉의 '신집찬출경율론록(新集撰出經律論錄)'에 따르면, 지참이 번역한 〈수능엄삼매경〉은 요진(姚秦)에서 활동한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7종이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구마라집의 번역 본뿐이다. 이 경전은 바로 대승의 선관(禪觀)을 주로 논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전이지만, 동한 시기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수능엄삼매경〉 등 대승경전 번역
반야경전 최초번역 사상계 대전환
아미타신앙 최초로 중국에 소개해

〈반주삼매경〉도 또한 대승의 선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반주(般舟)'는 '불립(佛立)', '불현전(佛現前)'의 의미이며, 이 삼매(三昧)를 얻으면 '시방제불(十方諸佛)'이 현전(現前)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경전에서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念)하기를 일주야(一晝夜) 및 칠주야(七晝夜)를 하면 선정의 상태에서 아미타불을 볼 수 있고, 사후(死後)에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미타신앙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반주삼매경〉은 후대에 여산(廬山) 혜원(慧遠)이 역사상 최초의 정토결사인 '연사(蓮社: 白蓮結社라고도 함)'를 일으킨 소의경전이다. 따라서 중국 정토종의 출발을 바로 지참의 역경으로부터 설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참이 번역한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행반야경〉이다. 이는 바로 반야부에 속한 경전이며, 오(吳) 지겸(支謙)의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요진 구마라집의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이 〈도행반야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중국에 최초로 반야경(般若經)을 번역해 소개함으로 중국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사상을 전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참이 〈도행반야경〉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용어는 대부분 노장(老莊)의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행반야'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音譯)되고,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意譯)되는 Prajña Pāramitā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도행'은 바로 〈노자(老子)〉에 나오는 "대도를 행함[行於大道]"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대에 '제법성공(諸法性空)'으로 번역되는 것을 '제법본무(諸法本無)'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지참도 '공(空)'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를 '무(無)'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性空)'과 '본무(本無)'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서 심각한 철학적 사유의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본무(本無)'는 '본래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에 따르면, '일체는 모두 본래 아무 것도 없다[本無]'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도행반야경〉에서는 "본래 온 곳도 없고, 가서도 또한 이를 곳이 없으니, 부처도 또한 이와 같다.[本無所從來, 去亦無所至, 佛亦如是.]"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본래 없음은 또한 온 곳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다.[本無亦無所從來, 亦無所從去.]", "일체는 모두 '본무'이고, 또한 다시 '본무'도 없다.[一切皆本無, 亦復無本無.]"로 귀결되어 '본무' 조차도 부정되는 것이다. 이는 반야법의 전형적인 논리이지만, 이러한 번역으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 배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장 혹은 〈주역(周易)〉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은 지겸이 〈도행반야경〉을 다시 번역한 〈대명도무극경〉에 이르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겸의 스승은 지량(支亮)인데, 이 지량은 바로 지참의 제자이다. 〈불조통기〉에 따르면, 당시에 지참·지량·지겸을 '삼지(三支)'라고 칭하며, 사람들이 "천하에 '삼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찬탄하였다고 한다. 지겸이 사조(師祖)가 번역한 〈도행반야경〉을 다시 번역했던 까닭은 당시에 이 경전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참은 동한에서 활동하였지만, 지겸은 위(魏)·촉(蜀)·오(吳) 삼국으로 분열된 시대에서 활동하였다. 이 삼국들 역시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통치이념을 바로 불교, 특히 반야경전으로부터 찾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도행반야경〉을 번역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위(魏)가 건국되고, 유명한 왕필(王弼)은 바로 이 〈도행반야경〉과 〈대명도무극경〉을 통하여 현학(玄學)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새롭게 칭제건원을 한 조위(曹魏)에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왕필은 이러한 현학을 통하여 이전의 중국사상에 없었던 '체(體)·용(用)', '본(本)·말(末)' 등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왕필의 현학을 '본무론(本無論)' 혹은 '귀무론(貴無論)'이라고 칭하는데, 이로부터 여실하게 〈도행반야경〉의 '본무'를 원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왕필이 제시한 '체용', '본말' 등의 개념은 이후 중국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불교의 반야사상을 이해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왕필의 천재성이 더욱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 평가해야만 될 이는 바로 그러한 반야부 경전을 최초로 번역한 지루가참이 아닐까 한다.

동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세고와 지루가참이 바로 '양대 역경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안세고는 아비다르마 계통의 이른바 '소승'에 속하는 경전을, 지루가참은 '대승'에 속하는 경전을 역출하고 있어 대·소승의 경전들이 거의 동시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 또한 중국불교의 독특한 성격을 획정하게 되었다. 동한 말의 혼란한 시대상황으로 인하여 비록 그 상세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안세고와 지루가참의 역경은 중국 땅에 본격적인 부처님의 혜명이 펼쳐지게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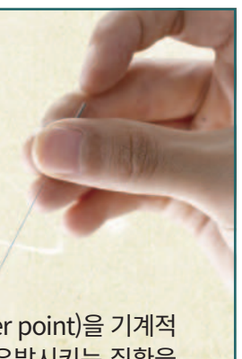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❷ 붓다 형상화 어떻게



▶ 한줄 요약
존엄한 부처님의 형상을 일반인의 모습으로 조성할 수 없어서 '도상의궤'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도론 · 열반경 등에 명시된 '32상 80종호'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불상을 조성하게 된다.

존엄한 부처님 표현한 시각적 상징들

1세기 중반 그리스의 신상을 모방하여 최초로 붓다의 형상을 조각하게 되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가 된 인도 서북부 간다라(Gandhara) 지방에서의 일이다. 오늘날은 파키스탄에 속하며 여기서 성행한 인도 · 그리스 혼합 양식의 불교미술(Art grecobouddhique)을 간다라 양식이라 한다. 그 특징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에서 같이 옷 주름의 융기선을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적인 표현에 있다.(그림①) 이에 자극을 받아 갠지스강 중심의 인도 중부지방서는 순수한 인도양식의 불상 조각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마투라(Mathura)양식의 불교미술이라 한다.(그림②)

그렇다면 초기 불상의 조각은 어떤 근거로서 이뤄졌을까? 그것도 불멸 후 500~600년 이후의 일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붓다의 자태를 보통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음으로 초인적이고 존엄함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도상의궤(圖像儀軌), 32상 80종호다. 이를 바탕으로 초인적이고 존엄한 붓다의 자태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론〉, 〈열반경〉, 〈무량의경〉 등에서 '32상 80종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붓다의 32상은 이후 불상을 제작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불변의 원칙이 됐으며 거기에는 종교적 이상이 숨겨져 있다.



그림①. 2세기에 조성된 간다라 양식의 불상



그림②. 2세기 전반에 조성된 마투라 양식의 불상(킴벨미술관 소장)

불상 조성하며 도상의궤 등장해
지도론 · 열반경 등 경전 명시된



선정인



여원인 시무외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이상 여진미술관 소장)

불상의 형태나 양식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도 그것은 시대양식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32상은 붓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후 보살에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는 불보살이 필히 갖춰야 할 신체적 특징이 되었다. 이와 같은 32상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에 기재돼있으며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고 〈지도론(智度論)〉 88법계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붓다의 32상 80종호

1.족안평상 2.천폭륜상 3.수지섬장상 4.수지유연상 5.수족만망상 6.족흔만족상 7.족부고호상 8.천여록왕상 9.수과슬상 10.마음장상 11.신종광상 12.모공생청색상유 13.신모상비상 14.신금색상 15.상광일장상 16.피부세활상. 17.칠처평만상 18.양액만상 19.신여사자상 20.신단직상 21.견원만상 22.40치상 23.치백제밀상 24.치아백정상 25.협여사자상 26.인중진액득상미상 27.광장설상 28.범음심원상 29.안색여감청색상 30.안첩여우왕상 31.미간백호상 32.정성육개상

기타 경전에서는 여기에 더해 "혀가 붉다" "가슴에 만(卍)자가 그려져있다" 등 32상에 80종호를 첨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32상을 경전의 내용대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를 우리 현실의 인식체계로 살펴본다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밝혀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족만망상'이다. 아마도 초기 석재로 불상을 조각하면 재질의 특성상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하나 갈라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손 · 발가락을 붙여서 조성하고는 "붓다의 손 발가락 사이에는 마치 오리처럼 막으로 붙어있다"고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조각에서도 손발의 표현을 그렇게 붙여서 제작하고 있지 않은가?

32상은 일목요연한 상이며 80종호는 32상보다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그래서 수상(隨相) · 소상(小相)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 것인데, 부처님의 모습뿐 아니라 성격 · 음성 · 행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 32상 80종호는 모든 부처님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용모(容貌)와 신체적 특징만으로는 어느 부처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붓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의 교주임으로 모든 여래상의 제작은 석가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몸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거나 장식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간단한 옷과 가사를 걸칠 뿐이다. 비록 '수행석가상' 등에서는 발우나 석장(錫杖)을 들기도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지물(持物)은 들지 않는다. '설법상'은 붓다가 성도 후 여러 나라를 순력하면서 설법 중생교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초전법륜(初轉法輪)은 사르나트(Sarnath) 즉, 녹야원(鹿野苑)에서 교진여(憍陳如) 등 5비구에게 사성제(四聖諦)를 설하였다. 불교미술에는 붓다의 '탁발수행상'이나 '설법도'가 많은데, 붓다의 중생교화를 위한 설법장면을 형상화한 이 '석가여래상'이 일반적인 예배대상의 불상이 되었다.

붓다의 五印

붓다의 옷차림새는 싯달타 태자 출가 당시의 모습으로 하반신은 치마, 상반신은 견의(肩衣) 즉, 가사(袈裟)을 걸치고 그 위에 대의(大衣)를 둘렀으며 발은 맨발이다. 착의의 형식으로는 두 어깨를 다 덮는 통견(通肩)과 우측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偏袒右肩)의 2가지가 있다. 이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래형(如來形)의 형태에서는 다 같으므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두 손의 동작인 수인(手印) 즉, 인상(印相)을 통해서 구분한다. 모든 부처님에게는 각기 다른 손동작의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 상호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손의 위치나 손가락의 구부림 등을 통해서 어느 부처님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상은 바로 붓다가 설법할 때, 그때, 그때 각기 다른 손동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도 남과 대화를 나누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짓을 하며 말하지 않는가?

인상의 의의는 현교(顯教)와 밀교(密教)는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현교에서는 인상을 표식(標識) 즉,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여원(與願)' 혹은 '공덕(功德)'의 표시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대외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상의 유래 역시 부처님의 특정 행위의 자태에서 연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여래상 중심의 5인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정인(禪定印): 정인(定印)이라고도 하며 양손의 손바닥을 중첩하여 부좌(趺坐)위에 올 려놓고 있다. 이는 붓다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든 모습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다섯 손가락을 펴 세우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는 자세다. 붓다가 설법하면서 중생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안심하라는 자태이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무릎을 감싸고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는 손모양이다. 이 역시 붓다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중의 항복을 받을 때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경주 석굴암 본존불이 바로 이 자세이다.

○전법륜인(轉法輪印): 설법인(說法印)이라고도 하는데, 붓다가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설법 장면의 손모양이다. 이 손 모양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인도에서 최고 오래된 불상의 설법상은 왼손은 가사의 끝단을 잡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이는 4, 5세기에 유행한 형상으로 중국에는 북위시대 전해졌다. 그 밖의 다른 모습은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오른손을 밖으로 향하면서 엄지와 식지(食指)을 서로 맞대어 원을 형성하고 왼손은 펴서 위를 향하며 두 손가락이 오른손 손목에 닿고 있는 손모양이다.

32상 80종호 통해 부처님 표현
다양한 여래상은 手印으로 확인

○여원인(與願印): 시원인(施願印)이라고도 하며 왼손을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손모양이다. 이는 불, 보살이 중생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수인으로 시여(施與) 즉, '베풂'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석가상을 중심으로 나타난 5인은 이후 현교상(顯教像)에 응용되었으며, 후대에 이르면서 밀교의 성행과 함께 힌두교에서도 사용되면서 그 전개가 갈수록 복잡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상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곧 복잡한 정신 내용을 상징적 표현하고 있음이다. 그러므로 불교미술을 연구하거나 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인(印)'은 상징적 손 모양으로 '손가락의 언어'이다. 불상의 아름다움은 다채로운 손 모양에서 찾아지며,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불교미술 걸작이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손의 자세와 손가락의 형태는 철리(哲理)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인도인의 지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상징의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량장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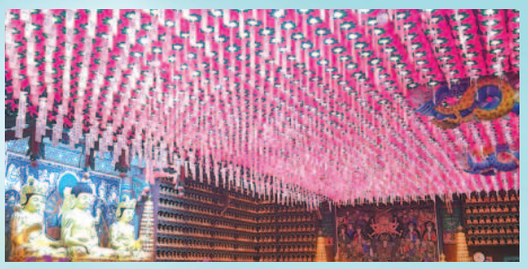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❶ 본래 쓰레기란 없다

▶**유정길 소장은** 1986년 수행공동체 정토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불교수행과 사회운동을 해왔다. 에코붓다의 이사로 '생태사상과 교육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제로-빈그릇운동' 등 대안적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평화재단 기획실장, 전국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아프가니스탄 주재 JTS 카불지원 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자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룩한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버려진 천으로 만든 부처님의 옷

부처님을 비롯하여 당시에 수행자들이 입은 옷을 분소의(糞掃衣)라고 한다. 버려진 시체를 덮었던 옷이며, 쓰레기 더미에서 구한 천, 소가 이빨로 씹어서 떨어진 천, 쥐가 파먹어 못 쓰게 된 천 등이 분소의를 만든 옷감이었다. 이러한 옷도 최소한 6년 이상은 입도록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 목록인 바라제목차에 나와 있다. 이러한 정신은 〈아함경〉에서 아난존자에게 왕비가 찾아와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스님들은 가사가 낡아서 입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잘 수선하여 입습니다."
"도저히 수선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행주로 사용합니다."
"행주로 사용하기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걸레로 사용합니다."
"걸레로 사용하기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잘게 잘라서 흙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스님들은 공양물을 참으로 소중히 사용하십니다"라고 감동하면서 함께 정진하는 모든 대중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한국 스님들의 오랜 전통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살림의 전통이 있다. 스님들의 승복은 누더기가 될 정도로 기워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쓰던 바가지가 깨지면 솔뿌리로 꿰매어 사용했고, 종이와 먹물을 아끼려고 붓에 맹물을 찍어 묵판에 글씨 연습을 했으며, 벌레가 밟혀도 죽지 말라고 짚신도 올이 굵은 것을 신고 육환장으로 땅을 치며 산길을 걸어 다니셨다.

또한 사찰의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선운사, 전등사 등을 가보면 굽고 휘어진 나무라도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 또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새들이 요철(凹凸)로 되어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체하여 고스란히 다른 곳에 옮겨 재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室性)이 있었다. 습기나 흰개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다른 목재로 짜깁기 하듯이 수리했다. 더욱이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나온 목재들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누더기 전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실성과 조립성이 강한 건축물이 수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공짜 자연을 쓴 댓가

그러나 오늘날은 가히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사회이다.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소비하는 인간'이다. 사람들의 소비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배달용 포장폐기물은 더욱 넘쳐나고 있다.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게 되어 썩지 않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쌓이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속이 늘어나는 매장이 있다. 주로 1000원에서 5000원이내의 초저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점포도 대형화하면서 1997년 5개에서 10년 만에 전국에 1300개로 점포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성업 중인 '100엔숍'은 주머니가 얇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다이소'를 비롯한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로서는 좋지만, 대체 이윤이 어떻게 남을까 공연한 걱정이 든다. 또 걱정되는 것은 대부분의 상품이 플라스틱 제품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렴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쉽게 버리게 되며, 결국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값이 쌀 수 있을까? 일단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싼 중국 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인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저가의 물건은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값싼 노동력 덕분이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노동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억압과 비인권적인 노동력 착취가 있다. 나의 편리와 안락의 토대는 이처럼 값싸고 억압적인 노동력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못 쓰게 된 옷으로 만든 분소의
헤지고 낡아도 6년 이상 입어와
극단적 소비사회인 현재에 경종
비연기적 행동들이 세상 병들여
좋은 일은 불편… 거룩한 불편함

나는 이익, 타인은 피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과 공기, 석유 등 모든 자연자원을 공짜로 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걸 버리고 처리하는 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식수, 공기, 또는 석유, 가스, 광물 등은 엄밀하게 부지 구입이나 채굴과정에 물, 공기, 석유, 가스 등 원료 그 자체를 만드는 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그 자연을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채굴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폐기하는 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흙과 자연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이다. 우리는 그것이 복원되거나 재생되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채취해서 쓰고 있다. 미래세대가 써야할 석탄, 석유, 가스 등은 남겨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언젠가 고갈될 한정된 자원임을 모르고 있을까? 먼 미래의 일,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진 포장지도 엄청 많아졌고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태워지거나 어디론가 멀리 보내 불법으로 폐기된다. 아마 도시와 좀 떨어진 농촌 변두리 어디쯤 있는 매립지이거나 전국에 약 300여 곳이나 되는 불법매립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 돈을 주고 보내져 처리된다. 이들 쓰레기 매립지를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지경이다. 모기와 파리 벌레로 들끓고 악취가 풍기며, 썩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자주 화재가 발생한다.

비불교적 비연기적 세계관

환경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부른다. 자신이 행동에 의한 과보를 자신이 받지 않고 외부의 가난한 사람, 약한 생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 오염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강에 방류해버려 결국 강물은 오염되고 수생태계는 파괴되고 식수가 오염된다. 그가 비용을 줄여서 얻은 이익만큼 물고기들은 죽어갔고, 수질이 오염되었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 국민세금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 바다 생물을 죽게 했고 이후 미래세대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정화해야 한다. 결국 줄인 비용은 다른 생명의 목숨과 미래세대들이 지불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화석연료의 편익은 결국 뭇 생명의 죽음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댓가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결국 댓가를 지불한다. 인과응보인 것이며 자업자득인 것이다.

결국 "나와 상관없다"는 비연기적인 어리석은 생각이 원인이다. '남이 가난해지든, 병이 들든, 죽어가든 말든, 바다가 쓰레기로 죽어가든, 지구가 더워지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 '나만 안전하면, 우리 집만, 우리나라만 우리세대만 안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결국 남의 안녕은 나의 안녕과 근본적으로 무관하다는 '분리된 자아'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긴밀히 상관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리석음이다. 결국 생명들과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오염자나 수혜자가 정화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과 정책은 바로 오염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되어야 한다.

생태적 가치의 삶이란

3벌의 옷과 1벌의 발우 (三衣一鉢)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스님들의 생활이다. 극단적인 소유이다. 불교적 가치이자 생태적 가치의 삶은 결국 작은 규모로 작게 소비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것이다. 또한 '천천히 사는 것이 아름답다(Slow is beartuful)'의 가치로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하는 것이다. 또한 썩지 않는 것은 생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Rot is Beautiful)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Share is Beautiful)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법구경〉 '화양품'에는 '벌이 꽃내음과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듯이, 성자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을 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지속가능한 자연이용도 이처럼 꿀벌이 꿀을 따듯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편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하도록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은 다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불편함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순진한 마음 일어 믿음의 세계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③ 부처님을 만나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고 기뻐서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유한 마음을 내어 찬다라에게 노래를 부르듯 말하였다.

"내 듣자니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것, 말씀대로 진실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하리라. 우러러 생각건대 부처님께서는 널리 세상을 위하여 나오셨으니 응당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저로 하여금 반드시 뵈올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어 널리 밝은 광명을 놓으시고 견줄 바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 승만 부인과 그 권속들은 머리를 발에 대고 절을 하고는 모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다.

"여래의 미묘하신 몸은 세상에서 짝할 수 없는 것. 견줄 바 없이 불가사의하시니, 그러므로 지금 공경히 예배드리나이다. 여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그러해 일체의 모든 법에 항상 머무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귀의하나이다. 마음으로 지은 허물인 악업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도 이미 다 조복하신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법왕께 절하옵니다. 일체의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아시며 지혜의 몸이 자유자재하시며, 일체 법을 모두 지녔사오니 내 지금 공경히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공덕 헤아릴 수 없음에 예배하며 비유할 수 없음에 예배하며 가없는 법문에 예배하며 불가사의함에 예배하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불법의 종자가 자라나게 하소서.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원하옵나니 부처님 언제나 거두어 주소서.

'내 이제 너를 편안케 하여 전세에 이미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이제 다시 너를 거두어 주노니미래의 생에도 그러하리라.' 하소서 저는 이미 공덕을 지었으니 현재에도 또 다음 생에도 이와 같은 온갖 선근으로 원하옵나니 거두어 주실 것을 보여 주소서. 이때 승만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신심을 일으켜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제2의 탄생이다. 편지를 받은 승만 부인이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찬탄하고 뵙기를 원하였더니 부처님이 공중에서 광명을 놓고 나타난다. 이는 선근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장면이다. 승만 부인이 곧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편지를 읽고 난 기쁨을 이길 수 없고 부처님의 출현에 감격하여 찬탄 예배를 한 것이다. 게송을 읊고 절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요즈음 불자들이 법당에서 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종교(宗敎: religion)의 어원이 라틴어 'religio'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어원의 뜻을 예배(禮拜)라고 번역하며 또는 결합(結合)이라 번역한다. 물론 이는 서양의 신을 믿는 종교에서 먼저 해 온 말이다. 인간이 초월자 혹은 절대자에게 예배를 올린다는 의미와 인간을 절대자와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있어서 예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의 예를 갖출 때 신심이 우러나고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것이다.

입적한 지 오래된 어느 큰스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는 조건으로 3000배의 절을 하게 했다는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절이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경을 표하는 예법이지만 진리를 위하여 몸을 던진다는 숨은 뜻이 있다.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이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 동시에 부처님을 향하여 자기의 원을 피력하고 그러한 원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힘에 의하여 성취되기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이 일어나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신행이 귀의, 찬탄, 참회, 발원의 네 가지에 의해 믿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 중에 선근(善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좋은 일은 모두 선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선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생, 금생, 내생의 삼생에 걸쳐 선근이 온갖 선근이 성숙되어 부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을 바라는 승만 부인의 마음이 순진무구하고 진실해 보여 매우 인상적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량 응신으로 중생 구제하는 관음보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㉖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이처럼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지만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자대비심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보살임이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난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처럼 능히 다라니를 설하시는 이 보살마하살은 다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사뢰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음자재로 일명 연색(撚索), 또는 천광안(千光眼)이라 한다. 이 관세음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으니, 과거 무량겁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그 호를 정법명여래(正法明如來)라 하였다. 그럼에도 대비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살의 형상을 나타냈으니, 모든 대중과 범천, 제석천, 사천왕, 천, 용, 귀신 등이 마땅히 그를 공양 찬탄하면 많은 복을 얻고 죄를 멸하여 목숨이 다하고 난 뒤 아미타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고 분명히 성불한 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한 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의 형상으로써 모든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경의 내용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구세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원력과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현(應現)하십니다. 때론 33응신을 하기도 하고, 34응신을 하면서 다양한 변화력과 응현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응현하시는 모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응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우리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다양하고, 중생의 원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 성문, 연각의 모습으로, 때로는 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묘법연화경〉 '보문품'에서는 '33응신의 구세자'로서 관세음보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묘음보살품'에서는 '34응신'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엄경〉에서는 32응신의 구세자로서 관세음보살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무량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모습을 나투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육도윤회세계의 중생구제를 위해 윤회세계에서 때로는 6관음의 모습으로, 때론 8대관음의 모습으로, 때로는 11면관세음의 모습으로, 40관세음, 42수관세음의 모습으로, 때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대자대비한 신통으로 보신을 나투시며 다양한 변화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한량없는 모습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③ 번뇌는 앎의 발판

'나' 있는 한 번뇌 버릴 수 없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보는가?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수행승들이여,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용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피함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제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

번뇌란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수행 역시 일상을 벗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일상의 바른 봄이 수행이라는 마음을 오롯이 새기고, 생각의 범람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자. 그래야 번뇌의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번뇌는 '개인의 번뇌'와 '공통의 번뇌'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번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불안한 마음이다. 공통의 번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에 대한 이치에 맞는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 각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우주에 혼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 만약 이 착각이 사실이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같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자신 조차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에 집 앞에서 굵은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보았다면 밤새 두려움에 떨겠지만, 날이 밝아 보니 뱀이 아닌 굵은 밧줄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걱정한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지어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세히 관찰하여 보려하지 않고 미리 마음으로 짐작하여 확신하므로 불안한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일으킨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확실한 존재가 항상 실재 한다고 생각하고 그 '나'에 대해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택이 옳기를 바라며 그 선택이 나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양이나 소리 그 무엇이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모름의 봄을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지랑이와 같다는 걸 알게 된다. 존재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은 이치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기정사실화 시킨다. 생로병사는 계속 돌고 있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아지랑이는 아무 두려움 없이 보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이라는 번뇌를 가져 생긴 병일뿐이지, 실재하는 '내 몸'은 없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세상은 하나로 생겨났지만 견해는 두 가지가 생기니, 두 가지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네. 체와 용, 그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순간적인 인연으로 다르게 보일뿐 다름이 될 수 없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 것은 그 물결의 다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연의 출현이며, 바람의 인연이 다하면 다시 물로 돌아간다네. 항상 같이 있지만 인연의 출현으로 달리 나타나듯, 세상의 모든 현상 이와 다름이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골육종에 무너진 청년의 꿈…
"다시 웃을 수 있길"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탄 골육종에 왼쪽다리 절단
병원비만 1000만원 이상…의족 있으면 걸을 수 있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2호 | A14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卍佛寺 프로그램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불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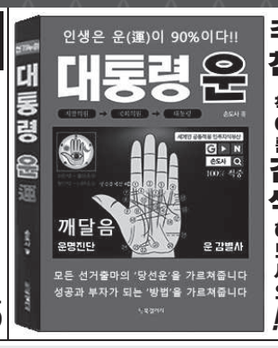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청주 상당구 봉은사
• • •
010-5883-2255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 수 비 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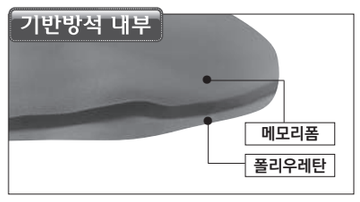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2호 | A15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450만원, 월세25만원

010-9181-9666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7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종교용지 218평/건평1층42평 ● 2층26평/단청 토기와 컨테이너6평 산신각,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심야전기, 천연지하석수, 1일150톤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실가이하로 ● 7억8천에 양도합

010-6425-8274
010-9319-300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 2백만, 월세 15만 권리금 3백만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사 찰 (급) 안 내

- 부산 영도구 용석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 대지89평, 기자재포함, 서재1, 방1, 산신각1, 용궁1, 해수관음상1
- 가액 5억1천만원 사정상 급하게 양도(절충가능)
- 네이버 검색시 사찰사진 있음

010-2350-8202
010-3653-5883

요양원·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312-52 백련사 사찰부근
- 물좋고 산세 좋음
- 대지 600평, 토목공사 완료 전기, 수도 공사 완료
- 가액 : 6억 복지법인 둥지마을 포함

010-6538-722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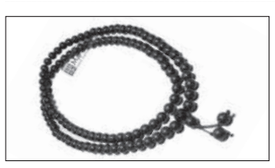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② 광주 무등산 원효사 느티나무

불이문 없는 절의 '불이문'



불이문(不二門)이 표제로 쓰여 있는 2022년 탁상달력을 넘겨본다. 전각이나 탑이 중심인 듯 배경인 듯 하늘이나 바다 혹은 산과 나무가 배경인 듯 중심인 듯 여럿이 아닌 듯한 한 묶음의 풍경들을 다 넘기고 나니 2023년 열두 달이 단숨에 펼쳐진다. 헛디딘 듯한 놀람을 달래려고 올해로 돌아오다 중간에 멈춘다. 무등산 정상을 넉넉하게 조망할 수 있는 광주 원효사의 여름이 싱그럽게 다가온다. 문득 검은빛 쇠문고리 옆에서 만개한 국화 꽃살문에 틈을 두고 기대어 서면, 언 마음에 훈풍이라도 진득거릴 것 같아 새벽 첫차를 타고 길을 나선다.

무등산 높이를 상징하는 1187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 일주문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두 개의 기둥 뒤로 큰 두 개의 기둥이 함께 지붕을 이고 있다. 둘인 듯 넷인 듯 하나인 듯 두 손 모아 한마음으로 합장하고는 통과해 겨울숲을 보니 벌거벗은 줄기와 가지들만이 가녀리게 흔들리는 바람을 무애로 벗 삼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혹 분홍빛 잃은 낙엽을 달고 있는 단풍나무가 가을이 세월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우세한 겨울에 밀려 위축될 무렵 가을인 듯 겨울인 듯 경계의 낙엽을 여분으로 달고 있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들이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보였다.

350년 되었다는 느티나무에 이름이 있었다. '생각하는 나무' 인데, 그 위에는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잘 설해진 말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법구경)라는 문장이 있었다. 꽃이 아름다운 색을 내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몸부림은 오로지 번식을 위해 매개곤충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처절하고도 화려한 생존 전략인데, 그래서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라는 말에 생각이 꼬이지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깊은 지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느티나무에 둘러쳐진 보호 울타리에 살짝 올라 빛이 스미는 나무 밑동을 보니 거기서부터 분지(分枝)로 자라는 두 그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서 처음 보았을 때는 수형이 둥근 부채 같아 느티나무임을 직감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뼈대만 남은 줄기들이 부챗살처럼 여러 갈래로 자라고 있어 시작점이 궁금했는데, 결론은 두 그루였다. 하지만 이것도 불확실한 판단일 수 있다.

나무들을 보면, 어떤 나무는 하나의 원줄기가 삼층석탑 1층 높이에서 손가락처럼 나누어지고, 어떤 나무는 삼층석탑 3층 높이에서부터 갈라져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나무가 높은 하늘에 닿는 지점에는 끝눈이 있는데 이들이 상하게 되면 나무들은 그 옆의 곁눈에서 싹을 틔워 생장을 이어가려고 한다. 이 분투 과정에서 분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모두가 생존 환경에 따른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게 편할 듯하다.

지구에 동물보다 먼저 등장해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 나무, 그래서 생명력도 강한데 그 비밀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듈(module) 구조에 있다. 즉 〈랩 걸〉에 나오는 "식물 조직의 대부분이 대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다는 사실"인데, 부분이 전체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무 위를 보았다. 속껍질이 황갈색이라 '누튀나무' 에서 '느티나무' 가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보다 눈에 번쩍 뜨인 그림은 녹지 않은 서리인 듯 눈 흔적을 움켜쥔 상고대인 듯 희끄무레한 꽃 같은 문양이 버짐처럼 퍼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이끼류와 다른 지의류였는데, 이는 조류와 균류가 공생하면서도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독특한 생물체다. 대기오염 지표 생물로 활용되기도 하는 지의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난간이나 석탑에서도 자라는데,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곳 공기가 맑다는 증표이다.

6세기 초 원효대사가 무등산의 산자수려함을 사랑하여 잠시 머물러 수행하셨다는 원효사의 천왕문 역할을 하는 원효루 아래를 지나 불이문 없이 곧바로 대웅전으로 가는데 꽃살문 기억은 가뭇해지고 '화엄성중' '화엄성중' 독송만 들려온다. 그래서 가을꽃 향기를 맡지 못해 아쉽기만 한 금목서를 맴돌다 흰 밀가루를 뿌린 듯 방금 세탁한 하얀 와이셔츠를 펼친 듯 은은하게 눈부신 무등산 설경을 눈에 담다 종무소 담장 모퉁이에서 열어진 황갈색 얼룩으로 올라간 민낯의 배롱나무가 여러 그루 보여 다가간다. 이 나무도 덮인 흙을 파고 들어가면 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을 법도 하지만, 추론만 할 뿐 추운 겨울 열매를 잘 매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는 여름의 붉은 열정을 고대하며 발길을 돌려 느티나무 앞에 다시 선다.

허공에서 눈사태로 쏟아지는 상념들이 이합집산으로 한 줄기에 모여 원효사에 없는 불이문이 된 건 아닐까? 긴 듯 아닌 듯. 마음 밖에서 따로 무엇을 구하는 이 우둔함 사이로 바람만이 흘러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② 유안진의 '다보탑을 줍다'

10원짜리 동전서 보게 된 '부처 그리고 나'

다보탑을 줍다

고개 떨구고 걷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석존(釋尊)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속에서 솟아나 찬탄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기가 영취산 어디인가
어깨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떨구면 세상은 아무데나 불국정토가 되는가
정신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다보탑을 줍다〉 (유안진 · 창비 · 2004)—

이 시집을 사게 된 이유는 순전히 시집(시) 제목 때문이었다. 다보탑을 줍다니, 어떻게 다보탑을 줍는단 말인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 크고 귀한 보물을 공짜로 줍는단 말인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유안진 시인이 경주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을 보고 느낀 것을 시로 썼으리라는 단순한 추측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읽었다. 그런데 시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나의 아둔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다보탑은 내 주변 사방 천지에 널려 있었던 거다. 다만 내가 그 보물(10원 짜리 동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깔보며 함부로 살았던 것이다. 대신 5만 원 짜리 벼락 꿈을 꾸며, 다보탑(깨달음)을 찾는다고 세상에 없는 길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다.

'고개 떨구고 걷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 유안진 시인은 첫 행부터 나의 아둔함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그리고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는 언술로 내 오만한 물욕(物慾)의 허를 찔렀다. 아, 내 마음의 형편없음이여. 오만한 물욕이여. 탐진치(貪嗔癡)여. 삼독(三毒)이여. 나는 주눅이 들었다. 사소한 경험에 입힌 유안진 시인의 기발한 상상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일상의 경험 곳곳에서 나도 숱한 다보탑을 만나고 줍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던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 귀중한 국보(國寶)를, 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 속에 담고 다니고 길거리에 흘리고 다니고 아무 데나 함부로 던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유안진 시인은 내가, 우리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 속에 담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아무 데나 함부로 던지고 다닌 10원 짜리 동전 속에서 '다보탑(보물)' 을 발견하고 '주워 든 것'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실제로 10원짜리 동전 뒷면엔 다보탑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 를 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유안진 시인에게 이것은 커다란 성취이자, 자신 찾기-자아(自我) 찾기였다. 불심(佛心)으로 가득 찬 유안진 시인의 처절한 구도기(求道記)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안진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여행을 가서도 반드시 성당을 물어 찾아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그 신심에 나는 여러 번 놀랐다. 유안진 시인은 어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진 10원 짜리 동전처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보물(깨달음)을 찾고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참된 모습[진아(眞我)]' 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행인들 속에 부처가 계시고, 우리가 무겁게 고개 떨구고 사는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佛國淨土)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통 수행자가 아닌 셈이다. 같은 시집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시 '내가 나의 감옥이다' 를 보면 유안진 시인이 얼마나 처절한 구도자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생활 속의 치열한, 낮은 수행자인지를 알 수 있다.

'한눈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가시껍데기로 가두고도/ 떫은 속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마음이 바라면 피곤체질이 거절하고/ 몸이 갈망하면 바늘편견이 시큰둥해져/ 겹겹으로 가두어져 여기까지 왔어라.' ('내가 나의 감옥이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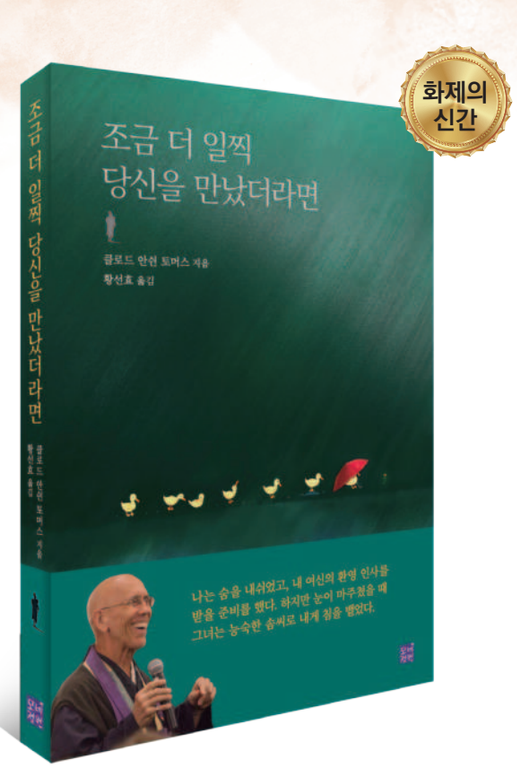
이 시 역시 처절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지켜보면서 '참 된 자기' [진아(眞我)]를 찾고 찾아가는 구도기다.

본래로 돌아가, '다보탑을 줍다' 의 진짜 묘미는 3연에 있다.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10원 짜리 동전은 정말로 쓸모가 없다. 아무리 값싸고 사소한 것도 10원 짜리 동전 하나로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은 10원짜리 동전을 잘 주워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화폐단위는 1원부터 시작하지만 최소 절삭 단위가 10원이어서 현금을 거래할 경우 10원 짜리가 없으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최소 화폐 단위인 것이다. 유안진 시인은 그것을 보고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동전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 있는 듯 없는 듯, 텅 빈 허공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명예도 욕망도 권력도 재산도 부러워하지 말고 10원 짜리 동전처럼 '쓸모 있는 듯 쓸모 없' 이 (탐진치를 버리고) 살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바로 붓다 정신이다.

유안진 시인의 시적 언술처럼 둘러보면 세상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불국정토 아닌 데가 없다. 어깨 (스)치고 지나가는 행인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내' 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해서이다. 내 집, 내 직장, 우리 사회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정토(淨土)가 못 되어서이다. 10원 짜리 동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쓸모없는 듯 쓸모 있는 듯, 낮고 낮은 자세로 '다보탑' 을 안고 살아갈 때 나도, 나를 스쳐가는 모든 행인들도 붓다가 될 것이다. 내가 속한 모든 시 · 공간도 불국정토가 될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대행 스님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마음의 근본은 한계가 없다

신도1(여) … (녹음 안됨)

큰스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있는데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누구냐고요? 당신이지 누구예요? 일체만 생명이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공해서 이렇게 돈다고,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랬는데 내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남의 주인공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신도1(여) 근데 저는 기독교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요, 거기선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도 인간들의 죄가 많아서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스님 이거 보세요. 옛날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불이라는 건 어떠한 걸 뜻하겠습니까? 우리네 생명, 즉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심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둘입니까, 하납니까?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신도1(여) 아니, 그런데요, 닭이나 달걀이나 뭐가 생겼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요.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관하세요. 그럼 댁이 어디서 온 걸 알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온 걸 알 테니까요. 우주의 근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댁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팡이 삼아서 모든 것을,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거기다가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자 공이니까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의정 나는 게 있으면 안으로 굴리면서 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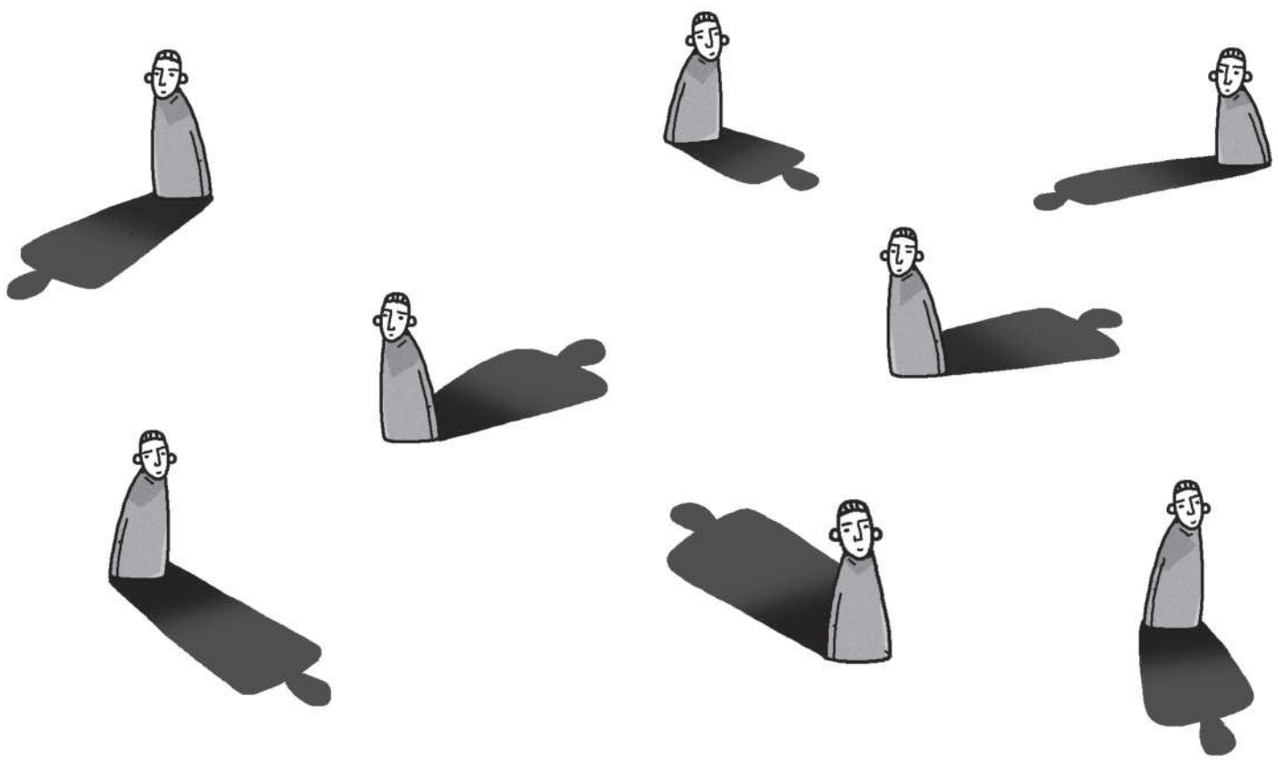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신도1(여) 그, 생각만 하면 그게 깨쳐지는 거예요?

큰스님 참…. 그 생각 모든 걸 전체 다 맡겨 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다 댁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참나가 어딨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그러고, 말로만 그냥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없이, 생각 자체를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나 드나 하여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일러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신도2(여) 부처님의 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은 삼라만상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돌고 도는 물과 같은 것이지마는 말 한마디 규정해서 아퀴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서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에 안다는 것을 세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화할 수 있으니 그것이…. 저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안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마이크의 근본은, 우리가 씀씀이가 없다면 이 마이크는 소용이 없죠.

(잠시 사이)

이전도 아니요, 이후도 아닙니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 돌 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근본, 근본" 하지만 모든 게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세울 게 없으니 어디로부터 세울 게 없는 게 생겨났는지…. 하여튼 모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자꾸 무르익어서 남이 먹기 참 맛있다고 하리만큼 익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 내가 한층 더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는 이것은 계단이 없으면서도 한 계단이 있고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려워라. 두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알고 두 번 죽어서 몰랐더니 세 번 죽고 보니까 알고 모르고 혼비백산이 돼 버렸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줄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억겁을 거쳐서 진화가 돼서 나왔지마는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의해서 모든 게 귀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 콩씨였더니 오늘에 보니까 금방 콩나무가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억겁을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이 몸 하나 난 것이, 전체 그 습을 두리둥실 뭉수리처럼 다 짊어지고 안고 이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전자에 살던 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하면 여자의 행동을 하는 습을 가졌고, 남자라 하면 남자의 습을 가졌고, 또는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하면서 어른이라는 습을 가졌고, 또 어른을 보면 나는 젊은이라는 습을 가졌습니다. 살림살이의 모든 전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이날까지 살아온 습입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는 똑같지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원이 똑같은 바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닝마도 있고 깡통도 있고 무쇠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서로 모이는 모임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자기의 습대로 자기 차원의 모임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자기 습에 의해서 인과를 짓고, 인과를 지음으로써 또 그 습을 떼지 못하면 그게 유전으로 변화하고, 유전으로 변화한다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아끼고 그러던 착을 둔 데에 유전성이 거기에 꼭꼭 붙어 돌아가고, 항상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붙어 돌아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이렇게 여직껏 내려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이 습을 모두 뗀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공이요, 또는 내 몸도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붙을 데가 없는데 떼려고 하는 게 어디 붙을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거는 어딨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것이 어딨겠느냐."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육조 스님은 "틀이 없는데 면경이 어딨으며, 면경이 없는데 때 앉을 게 어딨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

☞ A18면으로 계속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있겠는가

☞ A17면에서 계속

다. 그런데 그 말씀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일체 대의적으로 근본을 두고 말을 한다면, 근본 자체도 만약에 세울 게 없다면 그 소리는 상당히 누가 되는 문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래는 있다 없다가 흰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 사람의 그 생명이 있는 거, 일체 유생 무생의 그 만 사람의 마음의 꽃이 향기로써 이 우주를 덮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갈라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향기와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어질고 도의, 의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 높은 그런 넓은 사람이라면, 또는 이 도리를 알아서, 공한 도리를 알아서 자기의 아상도 세우지 않고 욕심도 착도 두지 않고 둥글둥글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자 부처인 것이죠.

사람은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폭발이 된 문제들을 신문이나 테레비에서 보고 들으셨죠? 물질적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 탄 사람이나, 탄 사람의 몸이나, 탈 수 있는 집이나 역시 물건이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의 근본은 절대로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의 그 능력과 무한의 그 생동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죠. 인간이 그 도리를 안다 하면 몸을 나라고 하기 이전, 참나로 하여금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호응하면서 공용하면서 어느 고장이라도, 어디든지 보고 듣고 가고 오고, 가고 오지 않으면서도 가고 올 수 있다고요. 빛보다도 더 빠르고 말로 세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찰나, 한 찰나. 각자 여러분 마음 깊이 한 찰나선은 그렇게 생동력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받치고도 남고 굴리고도 남고 들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서 서로 응용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갖은 각색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다 찰나찰나, 바로 찰나, 번갯불 같은 찰나선입니다. 어떻게, 한다 하리까, 하지 않는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없지 않다고 하리까? 있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그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에, 바로 한 찰나선에 우린 번갯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이 뜻을 이날까지 가르쳤건만 오늘날에 참, 그 가르친 마음의 선맥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어느 스님네들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차원은 실과가 만 가지 맛이 나듯이 만 가지의 차원이 있으니 그 차원의 그릇대로 우리는 바로 자기가 산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모두가 텅텅 비어서 한계가 없고 무한의 능력이, 자기가 한다 안 한다 말 없이 항상 늠름하고 여여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실상으로 여여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찰나찰나 고정된 게 없이,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행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서 모든 게 찰나찰나 자기가 화해서 돌아가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게 있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니, 바로 그 공이면서도 찰나찰나 여여하게 해 나가는 것이 세울 게 없으면서도 여여하지 않으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무전자와 더불어 유전자, 유전자와 더불어 이 물질, 육신과 삼합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을, 우리는 무전자나 유전자 이런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내 몸뚱이, 말, 생각 그저 이걸로써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죠? 그러니 구덩이에 빠지니 압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가는 건지 그것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혜가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깁니다. 어느 때 우리 신도님 한 분이, 그 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서 있다가 나중에 모범수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도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어느 아무개 아무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가르쳐 줬지요.

내가 내 주인공을 '주인공' 하고 부를 때는 내가 그 아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주인공도 되고 내 주인공도 되고 한꺼번에 합쳐서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그 아들과 나와 같이 한데 합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주인공!' 하면 벌써 그렇게 되니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아들이 나왔으면….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내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뭘 또 해 달라 말라, 응? 잘되게 해 달라, 못되게 해 달라 이런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생각을 거푸거푸 해야 됩니까? 내가 소원 풀 수 있는 그 생각은 벌써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는데! 그럼 덧붙이기로 벌써 두더기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깐 내가 본래 아는 거에다가 '아휴, 주인공!' 하면 한데 합쳐지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것도 겉으로만 하는 게 아냐. 마음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거기에 다 한데 부합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는데 뭐 해 달라고 안 해 달라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직속 놓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어치정어치정, 어물어물하다가는 치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한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어치정어치정하다가는 벌써 치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 어치정어치정하다가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게 그 쪼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갈 길은 못 가고 싸우다 볼일 못 보지, 한 발 떼다 볼일 못 보지, 또 그러면 이쪽에서 치이지, 그러면 싸우지, 이러다가 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있어야 부처를 이루지 육신이 없고야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건 왜냐하면, 육신이 없고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만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육신이 없어서 부닥침이 없어. 더하고 덜함이 없어. 이거는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내가 체험하고 배울 게 없거든. 진화될 수가 없어. 계발될 수도 없고. 내가 뭐, 물건이 있어야, 물건으로 상대가 있어야 어떻게 해 볼 텐데, 더 발전이 되고 계발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영이라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생시에 살다가 차원에 따라서 삼차원이다 하면 삼차원대로 그냥 있고, 이차원이다 하면 이차원에 그냥 있고, 머물러서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차원에서 생산이 될 뿐이에요. 원소가 무쇠라면 무쇠로 물건을 해서 생산을 할 수밖엔 없는 거죠. 금이라면 금대로, 원소가 금이니까 금에 의해서 반지를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바로 생산을 해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도 차원대로, 죽으면 몸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다, 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산이 돼 나와도 고 차원에서 나와야 되니까, 고 차원끼리 인연에 따라서 만남이 된단 얘깁니다. 한 식구가 모였다 할 때는 고 차원대로 딱, 보는 사람도 고 차원 또 당하는 사람도 고 차원. 그러니까 고(高) 차원이 아니라 고 차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차원에 따라서 이차원끼리는 이차원끼리 만나고 삼차원은 삼차원끼리 만나고 사차원은 사차원끼리 만나.

그러니 만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깡통끼리 만났다면 쪼끔만 건드려도 와르르 부서져서 소리가 그냥 엥그랑뎅그랑 엥그랑뎅그랑 나는 거죠. 그런데 넝마끼리 만난다면 넝마는 소리는 안 나는데 내성적으로, 그저 그냥 항상 빠느라 볼일 못 보고, 꿰매느라 볼일 못 보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전부 같은 넝마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다 이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할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생각 잘못하면 그 한 생각 잘못한 걸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원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이 없다면, 또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네가 망상을 내는 거지 딴 데서 내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망상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놈도 바로 그놈이고, 하고 있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니 모든 것을 거기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공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서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본래 모습이 없다면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도 알게 됐고, 고상한 것도 알게 됐고 더러운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것을 참 미처 몰랐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이 몸뚱이가 있고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낼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진화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법신으로서 부처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부처' 이러는 것이 미륵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올 것을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고 미륵부처라고 합니다. 본래 부처가 된 사람은 부처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앞으로 차차 부처님이 돼 나오실 것은 미륵보살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미륵부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있다면 후대 대통령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 또는 계발을 하고, 이 천체에 어디고 걸림 없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천지 만물 다, 우리는 아주 흰 꽃처럼, 향기처럼…. 그래서 그것을 만 백화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만 백화의 향기는 바로 만민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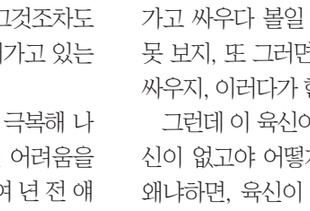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말을 시켰으니깐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같이할 때는 여기 하나도 내가 말한 예도 없고 여러분이 말 시킨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습니다. 모습만 다 각각이지 생명도 같아. 마음도, 또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것도 그래. 같이 이렇게, 독불장군 없으니 얼키설키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니 공체고 말입니다. 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하셨다면 그 '참나'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내 이 몸이 공해서, 몸 하나 공한 것과 세상 공한 것과 둘이 아니라 전체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놓으면 참자기의 그 익은 맛을 알게 되고, 한 맛을 알게 되면 만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자기가 주인이자 공이니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 다시 놔라.
> 맡겨 놔라.
> 그리고 믿어야 한다.
> 그 믿음에 의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30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幻환



지혜의 두 경전(經典)
반야심경, 천부경의 실상(實相) 진리(眞理)의 세계,
그리고, 무한 사유의 책이 나왔다.

密(밀)의 작가 최신작
幻(환)1 반야심경, 幻(환)2 천부경, 幻(환)3 사유(思惟),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환1은 반야심경 실상세계를 밝혔다. 환2는 천부경 성통광명 이천진리(理天眞理)의 세계를 밝혔다. 환3은 무한차원 이성(理性)이 깨어있는 지성(智性)의 세계이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84쪽 / 향 2권 316쪽 / 향 3권 352쪽 / 정가 각 25,000원

密밀 1, 2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35,000원
香향 1, 2, 3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23,000원
사유를 담은 가야금 1, 2권 달빛 담은 가야금 1, 2권 박명숙 저/신국변형판양장본/정가 각 20,000원(사유) 각 23,000원(달빛)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현불 논단 |

문화의 다섯가지 속성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인간 영역 모든 것 포함된 문화
시대성에 따른 부정·긍정 담겨
국가별 · 지역별 특성도 분명해

문화가 지닌 속성 알아본다면
의미와 가치 폭넓게 이해가능

공유성·학습성이 기본적 특징
축적돼 다양하게 형성되기도
정체되지 않고 변모해야 공존

문화(文化)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요약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개인 또는 인간 집단이 자연에 대응해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에는 사실 인간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화는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과 긍정을 모두 담고 있다.

문화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와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는 변천되고 또한 다채로운 모습으로 지역별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화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 공공연한 문화의 단어 속에는 문화가 다르다는 표현도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란 무엇인가. 또는 문화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면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문화란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의 수업과정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문화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가 '문화의 공유성'이다. 공유성을 보여주는 쉬운 예를 들자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는 등을 만들고 오색찬란한 등불을 켜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풍경을 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알게 된다.

또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보이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종교와 무관하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연등=부처님 오신날', '트리 장식=크리스마스'라는 문화적 특성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두 번째는 '문화의 학습성'이다. 학습성이란 누구든지 태생적이거나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 학습성의 사례를 사찰의 예절문화로 들 수 있는데 출가 수행자든 일반 재가자든 처음부터 사찰예절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사찰예절이란 출가 수행자의 경우는 처음 출가해서 행자생활과 수행생활을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또 재가자의 경우는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의 신행을 거치면서 인위적으로 익히고 훈습되는 것으로 반드시 학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의 축적성'이다. 축적성이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간 전달을 통해 장기에 걸쳐 일정한 형태와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문화의 변동성'이다. 어떤 문화라도 영구불변한 문화는 없으며 시대와 환경, 이를 향유하는 집단 구성원의 변동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의 전체성'이다. 전체성이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종합적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짚어 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된다. 문화란 변동하지 않고 정체돼 있다면 과거의 문화도 현재의 문화도 미래의 문화도 공존할 수 없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지금이 나를 바꿀 기회다

〈몰입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굳이 덕을 추구하고, 진화의 길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은 오래도록 울려 퍼지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식이 죽고 난 뒤에도 어딘가에 씨줄과 날줄의 일부분으로써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하고 싶은 말은 '윤회하면서 우리는 진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나의 생각과 행위는 다음 생의 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의 과보로 태어나 업력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업력(業力)이란 '마치 자기력(磁氣力)과 같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난의 삶을 전개시키는 것이 업력입니다.



그림 · 최주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결과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과보가 온 것이므로 받아야 할 것은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연의 법칙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업의 인(因)이 내게서 온 것임을 알고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얽힐 때 전체가 얽히고 내 마음이 풀릴 때 전체가 풀어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업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얽힌 매듭이 풀리고 운명을 바꿀 새로운 인(因)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인(因)을 심고 연(緣)을 맺고 업(業)을 짓고 과(果)를 받는 인연 업과의 관계에서 볼 때, 행복하거나 불행한 자리는 열매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과보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인을 심는 자리입니다. 과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새롭게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거둘 결실이 달라집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 인연법에 대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법은 우리를 협박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연의 원리를 알면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인생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승려대회, 종교감수성 제고 계기로

전국 5000여 스님들이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 결집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 1월 21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는 불교계의 대대적인 결집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승려대회의 취지는 명확하다.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교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미 7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직간접적인 종교편향과 차별, 불교왜곡 및 비하에 상처받아 왔다. 어찌보면 반세기 넘는 시기 누적된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염원이 승려대회로 모여들고 있는 셈이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갈등은 사회화합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인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 승려대회가 단순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을 규탄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물론 불교계 여론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도넘은 가톨릭 성지화 등이 함께 불을 지폈다. 그러나 승려대회는 단일사안에 대한 규탄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사회 속 암암리에 내재된 차별을 드러내, 국민들의 종교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승려대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사회 인식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국승려대회에 담긴 메시지가 정청래 의원 논란에 묻혀 정치행보로 치부되고 불교계 이익을 위한 결집으로 비춰져선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왕조실록, 진정한 환지본처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 의궤의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 의궤가 다시 본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관한 결의안'이 큰 역할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 회의때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유문화재의 관리 총괄 권한은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에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유 동산문화재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문화재청도 '일부 수용' 형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원본 대여를 통해 당해 문화재를 현지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 끝에 반환받았고,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도 이를 관리할 역량과 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월정사를 포함한 불교계가 그동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근거이기도 하다.

환지본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지난한 까닭이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대여전시 수준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환지본처될 날이 오길 발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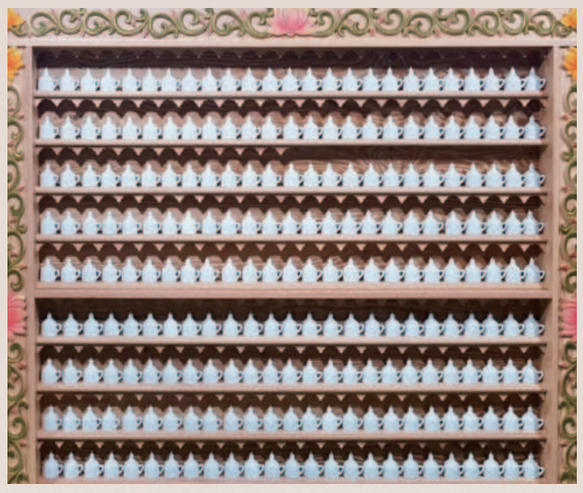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1.21 승려 대회

불교폄훼 규탄 5천 승려 파사현정 기치 드높이다

현대불교 특집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제 1372 호

결집과 경책

그 옛날, 5백의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정성껏 합송했다.

말법 시절을 앞둔 오늘, 그 시절 덕분으로 오늘을 사는 오늘의 대중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말씀이 여법하게 이 세상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 말씀을 큰 소리로 합송한다. 파사(破邪)에 앞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정(顯正)을 위해 죽비를 드는 것이다. 오늘의 죽비로 소란했던 안과 밖을 잠재우고 1월 21일 오후 2시 파사현정의 그날을 기원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1.21 전국승려대회

5000여 스님의 준엄한 경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발발된 8.27범불교도대회

위법망구 정신으로 佛法 수호 나선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월 21일 오후2시 5천여 스님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서 결집
종교 편향 · 불교왜곡 종식 촉구

파사현정으로 헌법 정신 수호
종교갈등 근본적 해결 촉구도
종교화합·국민통합 위한 결단

1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 전국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한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돼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공공영역에서 지속되는 종교에 의한 갈등 요인을 경책하고 규탄하는 뼈아픈 죽비이자,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방파제가 되겠다는 발원의 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국승려대회는 향후 우리사회 종교화합과 국민통합, 불법수호를 위한 역사적인 법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 사찰과 포교현장에서 수행과 포교, 전법에 임하던 스님들의 대대적인 결집 예고에 불교계 안팎의 시각도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 사안이 발생하면 성명서 발표와 사과 촉구 등의 단발성의 의사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사안이 개선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최 측의 사과 정도로 무마되거나 흐지부지 여론에서 잊혀 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 승려대회는 그 결을 달리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단순히 지난해 불거진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규탄을 넘어, 우리사회 공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역시 첫 시발점인 지난해 10월 5일 국정감사 시점부터 해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이 전통문화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전국 사찰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규탄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당사자 출당조치를 요구하는 강도 높은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응집한 결과라는 게 불교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오랜 세월 불교계를 괴롭혀 온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징수임은 차치하고라도, 그간 국가정책의 일방적 변화로 전통사찰이 국립공원에 강제편입된 상처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불교계가 떠안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쏟아내 국민들에게 편견과 오해를 전했고, 사과는 커녕 며칠 뒤 국정감사에서 재차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사업' 역시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캐럴을 활용해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도넘은 행보로 "종교편향 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다.

여기에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추가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정부의 전통문화 홀대 여론까지 더해졌고, 수년전부터 논란이 됐던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문제도 재조명됐다.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성지화는 이미 수년전 지역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직면한 바 있지만 결국 강행됐고,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성 문제 역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됐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교계 공분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없이 반복돼 온 종교편향, 불교홀대 사건들로 누적된 결과물이며, 전국승려대회는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스님들의 실천행이라는 평가다.

전국승려대회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법석이다. 전국 사찰과 선원, 포교현장에서 수행과 전법, 포교에 매진하던 스님들의 결집이자 범불교 · 범종단적 차원의 행보다.

이날 현장에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말사 주지스님 등 소임자 스님,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각급 교육기관 학인 스님,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30여 종단 스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승려대회를 봉행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도 불교지도자급 큰스님들로 대거 포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원로회의 의장과 원로의원, 명예원로,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위원은 현직 대종사와 대종사급 스님이 맡았다. 봉행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며 이를 중심으로 종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전국비구니회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상임봉행위원으로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승가대 총장, 동국대 이사장, 역대 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까지 한축을 담당한다.

때문에 승려대회는 불자들의 여론을 인지한 스님들이 먼저 결집하고 움직여 우리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불교계는 승려대회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2월경 전국 사부대중이 결집한 범불교도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당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서의 타종으로 종교차별과 불교폄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불교계의 굳건한 의지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방침이다.

승려대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고불문, 봉행사, 종정 진제 스님 유시, 대회연설, 결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원문 낭독 등 승려대회의 취지와 결의를 모으는 법석으로 열린다. 이어 2부는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한 차량 시위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승려대회는 시작일 뿐이다. 오랜세월 우리사회에 잠재돼 온 뿌리깊은 갈등의 씨앗을 이제는 뿌리 뽑아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종교감수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차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기독교 국가 수립 위한 공공 선교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1959년 12월 23일 기독교부산방송 개국

한국사회에서 종교차별은 미군정 시기에 그 확고한 씨앗이 뿌려졌다. 미군정은 미국에서 방송선교의 폭발적 성공 경험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방송 선교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공영방송이던 서울방송(KBS 전신)을 통해 1945년 10월 2일부터 일요일마다 기독교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자국에서도 하기 힘든 기독교 우대정책을 행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일요일 선교방송은 계속 이어졌다.

또한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CBS)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민간방송이었던 기독교방송은 1960년대 초반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전국 방송망을 갖추며 수십 년간 종교방송 시장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끌어 모았다. 반면 가톨릭 평화방송과 불교방송은 개신교보다 34년이나 늦은 1989년에야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다수의 개신교 신문 허가도 줄을 이었는데 1945~1959년 개신교 신자가 발행한 신문은 28개에 달했다. 개신교 신자가 사주인 신문들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기사가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국승려대회, 경과와 현황

1.21 전국승려대회


개신교 신자의 방화로 불탄 수진사

한불교종단협 종교편향 훼불 저지 결의

해미읍성 국제성지화 본격화

정청래 의원 불교폄훼 발언 항의



불자들의 릴레이 규탄 시위


캐럴캠페인에 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항의



더불어민주당사 항의 방문



불교왜곡 규탄 현수막

거세지는 규탄 여론… 승려대회 역량 집중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각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종교편향 · 종교차별의 피해자는 대부분 불교였다. 불교계가 그동안 종교갈등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 온 대표적인 종교로 인식돼 온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후 7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교계 화두는 종교편향이다. 이는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의 완전 종식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승려대회는 사실상 지난 한해 개별 사안으로 분산된 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여론의 결집이다. 불자들의 상처와 불편함이 분노로 바뀌고 규탄의지로 귀결된 일련의 과정을 톺아봐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편향 · 차별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불교계의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20년 남양주 수진사가 개신교신자의 훼불로 소실된 시점부터로 확인된다. 지난세월 수십여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해 왔지만, 이례적으로 개신교계의 배타적인 신앙으로 인한 불편함이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훼불사건은 일부 왜곡된 신념을 가진 개인의 일탈로 치부된 경향이 있었던 반면, 수진사 사태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돼 온 사찰 방화의 근절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신교에 대해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니라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21년 2월 이사회에서 회원종단서 발생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종단협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진정한 종교평화 확립을 위해서는 인내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올해 대선 ·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종교편향 예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사무소, 소속 당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변화가 이는 동안 국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논란이 제기됐고 주어사 · 천진암 등 국가예산이 투입된 가톨릭 성지화 사업에 대한 심각성도 재차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미 수년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지만 저지하거나 개선되지 못한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발언이다. 조계종은 11월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출범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재하고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종책모임 대표단, 호계원장 보광,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봉선사 주지 초격,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비롯한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사안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결의했다.

정청래 의원의 폄훼발언 등
지난해 연이은 논란 기폭제
신행·포교단체들 잇딴 성명

종단협 등 대책조직 구성도
각 조직들 승려대회 계기로
대응 위한 총결집화 이어져

곧이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정부가 특정종교음악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의 편향적 행보에 대한 불교계 분노에 불을 당겼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법적 조치에 나섰고 성난 불심은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전통문화 홀대 논란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상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증액안이 최종적으로 삭제 혹은 대폭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수차례 반복된 종교편향 논란과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등으로 불교계 공분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느끼는 소외감과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각 신행 · 포교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국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범종단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결과물인 셈이다.

1월 21일 승려대회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매주 '정청래 의원의 종교폄훼, 불교왜곡 망언에 대한 항의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과 정청래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월 27일까지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월 6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고 "불교 폄훼, 종교 편향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스님과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항의 서한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에 이어 전국 사찰의 행보도 눈에 띈다. 조계종 제16대교구본사 고운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 막말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종교 편향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전국승려대회에 제16교구 본 · 말사 스님 전원 참석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화엄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은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 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불교계 여론이 총결집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향후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정부 주도 국가조찬기도회 시작

박정희 정부(1961~1979)

개신교국가를 노골적으로 지향했던 이승만 정권 때 뿌려진 씨앗은 박정희 정권 때 폭발적인 교세성장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기간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를 통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개신교계는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는데, 1965년 2월 시작된 '국회조찬기도회'는 이후 매주 기도회를 가졌으며 "입법과정에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언하고 있을 만큼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개신교 교회의 국회 창구' 역할을 자임했다.

1966년 3월,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3부 요인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첫 모임을 가지며 아시아 최초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됐다. 제1회 대통령조찬기도회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과 개신교계인사, 정계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개최됐으며 이어 1974년까지 매년 5월초 연례행사로 계속됐다. 조찬기도회에서는 매번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가 행해졌고 정치권에 대한 종교적 찬양이나 축복, 반공 메시지가 주종을 이뤘다.



1974년 5월 1일 열린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

1.21 전국승려대회

기독공화국 추진 성시화운동 강화 대통령 교황알현 이게 나라인가!

반복되는 종교편향 역사



이승만 정부
1945~1960

-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
- 원조물자 개신교 우선 배정.
- 신학교의 대학원 인가.
- 공영방송서 선교방송 실시.
- 기독교방송국 · 극동방송국 설립.
- 제1공화국 국가의전 기독교 식으로 진행.
- 교회에서 해사대 군사훈련.
- 육군참모총장 '군대의 기독교화' 추진 약속.
- 불교계 사찰령 폐지 건의 묵살.
- 이승만 불교내분 부추기는 정화유시 발표.
- 기독교계 일요일 선거 반대로 선거일 변경.
- 국가배례를 주목례로 변경.



박정희 정부
1961~1979

- '국회조찬기도회' 개최.
- 대통령 위한 조찬기도회 TV실황 중계.
- 국방장관 · 3군 참모총장 모두 개신교인 충원.
- 전군신자화운동.
- '부대합동세례식' 거행.
- 전국교도소신자화운동.
- 전경신자화운동.
-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 '사찰관리행정지침' 사찰에 전달.
- 문공부 사찰정화 확인반 설치.
- 내무부 산림 내 암자 일제 단속.



전두환 · 노태우 정부
1980~1992

- 전두환 장군 위한 조찬기도회.
- '80세계복음화 대성회' 정부지원.
- 부처님 오신날 MBC 조용기 목사 선교방송.
- 정권실세들의 기독교 '아세아방송국' 설립 특혜.
- 전두환 정부 김장환 목사에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 극동방송 지방방송국 설립 특혜.
- 신군부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 수립'.
- 10 · 27법난.
- '전통사찰보존법' 대체 입법.
- 원각사 대웅전에 최루탄 발사 경찰 난입.
- 봉축행사에 백골단 폭력.
- 제등행렬에 최루탄 투척.



김영삼 정부
1993~1997

- 김영삼 정부 새 내각 기독교 편향 인사.
- 대장 10명 중 9명이 크리스찬.
- 예비군소집통지서에 "예수 믿으라" 선교문구.
-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법안 개정.
- 청와대 불상 철거 논란.
- 교육부, 부활절과 겹쳐 검정고시 날짜 변경.
- 총무처장관 국가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 육군17사단 불상 태워 유기.
- 이회창 선거운동 생중계한 극동방송.
- 국군 특수전학교 불교 탄압.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998~2007

- 정장식 포항시장 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사용 발언.
- 이명박 서울시장 '수도 서울 봉헌' 등 공직자의 잇딴 성시화운동 참여.
- 한국관광공사 후원 '한국교회순교현장순례' 개발.
- 제주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 순천시의회 기독교 특혜 조례제정.
- '한국기독당' 창당.
- 개신교 압박으로 사학법 재개정.
-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를 예수의 부대로".
- 육군 제55사단 편지봉투에 특정교회표시.
- 평택경찰서 유치장내 강제예배.
- 서울지하철 노선도에 특정종교 교리표시.
-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
- 오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행사 불허.



이명박 정부
2008~2012

- 이명박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기독경 묘사 문양으로 교체.
-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꿈".
- 개신교 국회의원들 '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추진' 법 개정 추진.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과잉 검문.
- 서울시청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문구 표기.
- 사랑의 교회 편법공사 위해 서울시가 도로위치 변경.
- 개신교계 반대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 이명박 대통령 '이슬람채권법' 무산 후 조찬기도회서 무릎기도.
- 지하철노선도 성경문구 삽입.
-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지침'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 낙단보 마애불 고의 훼손 의혹.
- 개신교 압박에 역이름 통도사 삭제.
- 기독교계 반대로 팔공산역사문화공원 백지화.



박근혜 정부
2013~2017

-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 설립해 선교 활동 계획
- 전주시 천주교와 개신교 중심의 '6대 종교관광 활성화 사업'.
- 전주시 '승암산'을 치명자산(천주교 순교자가 묻힌 산)으로 명칭 변경.
- 총리 지명자 문창극의 노골적인 종교편향.
- 종교편향 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 기독교 편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임명
- 인천공항 전통 연등 불허하고 크리스마스트리는 허용.
- 한국연구재단 종교연구 분야서 불교 배제.



문재인 정부
2017~현재

-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서 축복미사.
- 대통령 취임 특사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교황청에 파견.
- 해외순방 때마다 성당 방문.
- 전주시 특정종교 성시화 사업 재강행.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 문체부 '케럴 활성화 캠페인'.
-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톨릭 특혜.
-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행사 명동성당에서 개최.
- 황교안 대표 부처님오신날 사찰 가서 합장 거부.
- 전통문화 보전 전승위한 추가 예산 일부 삭감.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폐훼발언.
- 주어사 · 천진암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한국사회에서 종교차별은 광복 이후 미군정(美軍政) 시기(1945~1948)부터 시작됐다.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 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그 자리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불교계가 수십년 애쓴 끝에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30년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또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가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제1공화국의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서 기독교계에 특혜를 줘 교육, 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하고 있던 기독교계는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에 의해 지원된 복지기금 수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것은 기독교세를 급성장 시키는 물적 기반이 됐다. 또 형목제도와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 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그 자리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불교계가 수십년 애쓴 끝에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30년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또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가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제1공화국의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서 기독교계에 특혜를 줘 교육, 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하고 있던 기독교계는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에 의해 지원된 복지기금 수혜에 가장

◆ 박정희 정부(1961~1979)

개신교국가를 노골적으로 지향했던 이승만 정권의 국책과 불교 탄압으로 인해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갈등은 박정희 정권 때 폭발적인 교세성장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기독교 우대와 민족문화와 종교에 대한 차별을 지속했다. 거대집단이 된 개신교는 정치적 활용가치가 큰 세력이 됐고 개신교계에서도 반공주의를 계승한 박정희 정부는 활용한 동반자였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세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정당성 위기에 처한 독재권력을 반공주의를 내세워 지지해 줌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얻어내 새로운 선교 기회를 창출하는 등 여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 기간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를 통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 같은 교류를 통해 개신교계는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과격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다. 1966년 국방장관,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월한국군사령관이 모두 개신교인으로 충원되면서 1970년 초반에는 세계적 부와 관계없이 이승만이 불교계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 동안 국가와 종교가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불교 측 연구성과는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전한다.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악법들을 활용해 교묘하게 통제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제도로 활용했다. 군사정권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고 개신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80년대까지 진행된 개신교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됐다.

◆ 전두환 · 노태우 정부(1980~1992)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박정희 정부의 기독교 우대와 불교 탄압은 주춘히 이어지며 정권차원의 갈등이기가 시도됐다. 1980년 6월,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0 · 27법난의 계기가 됐다.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은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10월 27일 새벽 사찰에 진입, 스님 153명을 연행했다. 스님들은 무자비한 구타 등 고문을 당했고 총무원장과 종회의원 스님들은 사퇴서를 강제로 제출토록 강요받았다. 3일 후에는 3만 2000명의 군 병력이 전국 6000여 개 사찰에 진입, 원로 스님 등 1776명을 연행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해 10 · 27법난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 세력이 요구한 전두환 지지표명과 문공부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불교재산관리법 대신 입법된 전통사찰보존법 역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었다. 자연공원법 등을 제정해 불교재산관리주체가 불교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명시했다. 1968년 사찰을 관광지화 하겠다는 발표하면서도 정작 문화재 예산은 사찰에 배정하지 않아 불교문화재는 황폐함이 더해갔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쉽게 노출해 도굴되거나 혹은 방치돼 과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 김영삼 정부(1993~1997)

서울 강남 충현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이후 대통령이란 공직을 이용하여 거침없는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스스로 '문민정부' 라 내세우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지나친 종교 차별이 계속될 것 같다' 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장관급 인사 중 기독교인은 7명이었던 데 반하여, 불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권 초기엔 매주 감장환 목사나 조용기 목사를 불러 청와대 예배를 주관하게 했다. 2년제 무허가 신학대학 대부분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도 이때였다. 기독교 집회에 국가예비군이 강제로 동원되고 예비군소집통지서와 사찰에 보내는 공문에 기독교 문구가 삽입돼 물의를 빚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육군 제17사단 전차부대에서는 불상을 태워 야산에 유기했고 1996년 부처님오신날에는 특전사에서 법당 주위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조직 내에서만도 정교분리위배행위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훼불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개신교 공직자에 의해 국가시험 요일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부활절 주일과 겹친다며 검정고시 날짜를 변경하는가 하면, 국가공무원 시험 역시 평일에 실시했다. 반대로 부처님오신날에는 수십개의 국가자격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임기 말에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국방부 내 교회에서 공직자들을 대동해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모습이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김영삼 정부 시기 사회 일반에서도 개신교도들의 공격적인 선교활동과 불교멸해 행위가 급증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훼불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1994년에만 해도 30여 건에 달한다.

김영삼 정권은 서울 조계사에 두 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해 물의를 빚었다.

1994년과 1995년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전국기관차협의회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이어가며 불편했던 김영삼 정권과 불교 사이의 골을 더 깊게 했다. 경찰력 투입 당일부터 정권 규탄 시위가 펼쳐졌고, 얼마 후 조계사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법회가 개최되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1998~2007)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보수 개신교 세력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한국사회에서 거대세력으로 성장한 보수개신교계는 정권지지를 대가로 얻어내던 기존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벗어나 권력을 직접 배판하고 나아가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기독교 정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한 사건은 성시화운동 본격화다. 성시화운동은 2004년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공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지역 기관장과 유지, 목사들의 인적 네트워크인 홀리클럽도 이 시기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봉헌, 서천군 성북구청장의 교동협의회 구성, 조규선 서산시장과 전태홍 목포시장의 성시화 발언, 오현섭 여수시장의 '복음엑스포' 발언이 성시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교위배적 사건들을 보면 이미 교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지자체와 교회의 결합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명박 정부(2008~2012)

이명박 정부 들어 정교분리 위해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화' 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신교 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됐고 정치인들은 교회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이슬람채권법' 을 추진하다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직후 열린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일명 '무릎기도' 인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기독교국가화' 는 전국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기독교유적지를 조성했다. 정부가 만든 교통정보시스템과 교육지리정보서비스 등에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반발하면서 2008년에는 범불교 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신교계는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탭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보수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을 부렸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입시, 교직원 채용 등에서도 종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 박근혜 정부(2013~2017)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극심한 개신교 편중 인사와 집회 참여 등으로 종교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취임 당시 종교차별의 근절을 약속했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내각 인사를 보면 개신교 측이 절반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불교와 개신교 측의 입장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취임한 해 8월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교계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열었지만 개신교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14년 6월에는 문창극 총리지명자가 도를 넘는 개신교 찬양발언으로 사퇴문제가 일었다.

개신교계는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탭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보수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화' 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신교 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됐고 정치인들은 교회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이슬람채권법' 을 추진하다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직후 열린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일명 '무릎기도' 인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기독교국가화' 는 전국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기독교유적지를 조성했다. 정부가 만든 교통정보시스템과 교육지리정보서비스 등에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반발하면서 2008년에는 범불교 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신교계는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탭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보수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

◆ 문재인 정부(2017~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개인 신앙이 가톨릭만 밴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5월 초 취임하고 내각 구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정권 초기 미국 · 중국 · 러시아 · 유럽연합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에 가톨릭 주교를 로마교황청에 특사로 보내는 유례없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謁見)' 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21년 5월 22일 가톨릭교회 위상턴 교구장을 만나 "한국의 가톨릭 신자 비율이 12~13%이며 대부분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등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발원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트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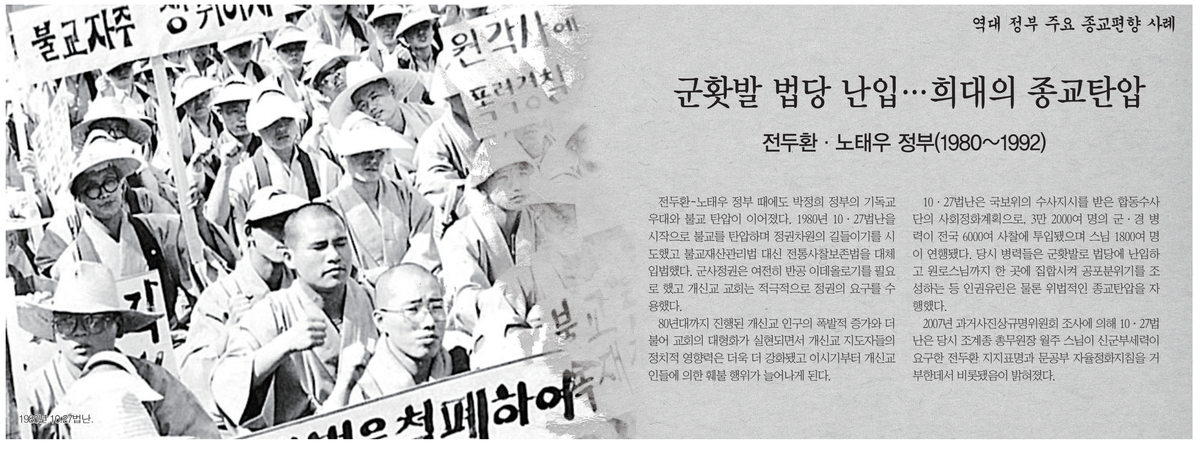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을 펼쳐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폐훼발언에 이어 진행된 것이라 불교계의 불편함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군홧발 법당 난입…희대의 종교탄압

전두환 · 노태우 정부(1980~1992)



1980년 10월 7법난.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에도 박정희 정부의 기독교 우대와 불교 탄압이 이어졌다. 1980년 10 · 27법난을 시작으로 불교를 탄압하며 정권차원의 갈등이기를 시도했고 불교재산관리법 대신 전통사찰보존법을 대체 입법했다. 군사정권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고 개신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80년대까지 진행된 개신교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더 강화됐고 이시기부터 개신교인들에 의한 훼불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10 · 27법난은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의 사회정화계획으로, 3만 2000여 명의 군 · 경 병력이 전국 6000여 사찰에 투입됐으며 스님 1800여 명이 연행됐다. 당시 병력들은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하고 원로스님까지 한 곳에 집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유린은 물론 위법적인 종교탄압을 자행했다.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해 10 · 27법난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세력이 요구한 전두환 지지표명과 문공부 자율정화지침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서울을 하나님께" 성시화 운동 본격화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1993~2007)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불교 탄압

서울 강남 충현교회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이후 대통령이란 공직을 이용하며 거침없이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요직에는 기독교계가 대거 기용됐다. 내각 각료 가운데 기독교교수협의회 전총무 J교회 장로 등 개신교 13명, 천주교 4명에 비해 불교는 겨우 2명만이 포함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한 사건은 성시화 운동 본격화다. 성시화운동은 2004년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공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포항에 이어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 '청년 학생 연합기도회' 에 참석,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를 직접 낭독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끝내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했다. 서천군 성북구청장의 교동협의회 구성, 조규선 서산시장과 전태홍 목포시장의 성시화 발언, 오현섭 여수시장의 '복음엑스포' 발언이 성시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교위배적 사건들을 보면 이미 교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지자체와 교회의 결합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1 전국승려대회

전국승려대회 이후 과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발발된 8.27범불교도대회

다종교 韓사회 '종교감수성' 필요하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한국은 다종교사회다. 탈종교현상으로 무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겼으나 여전히 종교인구는 한국사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약 510개, 2011년 약 566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한다. 탈종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 상황이 '종교백화점, 종교시장, 다종교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이유도 여기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이 다민족 국가인 중국 등과 달리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이면서도 다종교사회이고, 다종교사회이면서도 종교들의 상호 공존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종교 상황을 독특하다고 보면서 주목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 문화, 정치 등 한국사회 전반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외면할 수 없고, 종교로 인한 갈등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요인이 크다. 이를 위해 헌법에서는 종교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과 종교편향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차별은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1945~1948)부터 시작됐다.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 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 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여기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이를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편향은 한국사회에 깊게 파고 들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는 산업화와 맞물리며 급격하게 교세를 성장시켰다. 반대로 불교는 정화유시로 인해 대처 · 비구 갈등이 빚어졌으며, 불교재산관리법 · 자연공원법 등을 통해 온갖 규제를 받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다.

이렇듯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권에서 종교편향 · 차별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불교에게 돌아갔다.

축적됐던 불교계의 분노가 터져나온 일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봉행된 '8.27범불교도대회' 다. 당시 범불교대회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립되는 등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뤄졌다.

2009년까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안 전반에 종교차별 금지조항도 추가됐다. 심지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2항(종교중립의 의무)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까지 명시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포했으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까지 제작했다. 이런 정책으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종교차별 사례는 2009년 77건으로 시작돼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종교차별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예방 · 교육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적 변화에도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행위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런 공공영역의 종교편향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종교 인식에 따른 경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종교 갈등은 종교간 교리나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종교 갈등은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한 간극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며 이것이 종교편향과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국가지도자가 특정종교일 때
> 종교편향이나 훼불사건 증가
> 공공 영역 공직자 · 정치인들
> 종교감수성 높일 제도 강화를

이는 지난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으로 인한 논란과도 일치한다. 종교음악인 캐럴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교계 반발에 직면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실제 연말연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캐럴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각이 드러난 바 있다.

문체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장관이 직접 조계종을 찾는 등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교계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지속된 크고 작은 종교편향 · 종교차별에 대한 기억에 더해, "불교계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대해 불교계의 불만은 상당히 누적돼 있었다. 해외 순방에 항상 현지 성당에서 고위 가톨릭 인사를 만나는 등 대통령의 신앙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불교 역사를 지우는 가톨릭 성지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활성화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이 불교계 내부에는 축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찰의 희생을 감내한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왔지만, 방역지침에 대한 반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기독교계와 '종교계' 로 묶여 동급의 취급을 받은데 대한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훼발언에 이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조계종이 요청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유지전승을 위한 추가예산이 사실상 묵살되면서 '다른 종교계가 실속을 챙길 때 불교계는 희생만 하고 있다' 는 여론이 팽배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5년 동안 이어진 종교편향 상황에도 불교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코로나 방역 성공에 일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시와 조롱이었다"면서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 차례 제안서를 보내 요청했다. 국립공원으로 인한 불교 규제는 적폐다.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대응 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불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관람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데다가 그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는 점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단순한 실수나 왜곡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헌법에서 규정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중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종교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교편향 · 종교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대사회 · 대국민 차원의 종교인권 감수성의 확대에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직자의 역할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고양된 종교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종교편향, 종교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역시 상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금옥 순천대 前법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에서 "인권감수성의 부족 등으로 종교차별이 권리침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직자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관련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본지 신년인터뷰에서 "불교는 교리적으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표현되는 종교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신흥종교의 경우 초월신에 대한 신앙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배타적인 성향으로 이어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 특정종교일 때 종교편향이나 훼불사건이 상당이 증가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종교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교육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2011년 3월 3일 조찬기도회서 무릎 꿇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에 무릎꿇은 최악 대통령

이명박 정부(2008~2012)

이명박 정부 들어 정교분리 위배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화' 를 추진했다.

'고소영 내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개신교 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됐고 정치인들은 교회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이슬람채권법' 을 추진하다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직후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일명 '무릎기도' 인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기독교국가화' 는 전국에서 진행됐다. 전국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기독교 유적지를 조성했고 정부가 만든 대부분의 지도시스템에서 사찰이 빠져 불자들의 반발을 샀다. 2008년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차별 또한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을 더했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입시, 직원 채용에서도 개신교인에 대한 특혜가 주어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사회에 사부대중이 고한다

1.21 전국승려대회

“종교편향 근절 불국정토 가는 길”

종교편향 · 불교왜곡 대응 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1.21 승려대회, 숲스님 의지
종교편향에 희생 감내했지만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져
“불자들, 이차돈 성사 돼야”

“1월 21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는 한국불교 모든 스님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편향을 일삼고 불교를 왜곡하는 이들에게 한국불교의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장이자 범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선광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에 대해 자비와 인내 그리고 희생으로 감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일부 단체들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광 스님은 “정 의원의 발언이 시발점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 정부의 친가톨릭 행보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빈 초청을 받아 교황과 미국 가톨릭 주교를 만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종교의 선교 음악을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아주 지능적으로 가톨릭 선교와 홍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선광 스님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종교편향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길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다 이차돈 성사가 돼야한다”고 누차 당부했다.

“우리 모두는 ‘이차돈 성사가 되겠다’ 는 각오로 이번 전국승려대회에 임해야 합니다. 스님 5000명이 조계사에 모이지만 이는 한국 불교도의 전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의 경책에 정부와 여당은 귀기울여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규제가 적폐, 文정부 해결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정청래 망언, 다분히 의도적
“SNS 사과가 진정성 있는가”
잘못됨을 지적하는 승려대회
엄중히 위의 갖춰 치러낼 것

“종교편향 역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욱 지능적으로 특정종교의 선교가 이뤄졌죠. 정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념과 시기를 떠나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이자 봉행위원인 덕문 스님은 현재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태의 전말과 문제점에 대해 일갈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덕문 스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라고 봤다. 실제 정 의원은 나사렛성결회를 믿는 개신교 신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고 다선 의원임에도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에 대해 불교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당내 여론에 떠밀려 SNS를 통해 사과문 몇 글자 올린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그러면서 덕문 스님은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종교편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 내각의 가톨릭 편중 인사부터 ‘민족 전통 종교 역사 지우기’ 로 비판받는 가톨릭의 성지화 사업, 해외순방서 성당 방문 등 유례없는 가톨릭 편향 정책과 행보들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덕문 스님은 각종 불교 규제들이 ‘적폐’ 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불교를 둘러쌓고 있던 규제 해소에 대해 요청했지만 해결된 것은 없었다.

“문화재구역관람료 문제는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군사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만든 겁니다. 국립공원으로 인한 불교 규제는 적폐입니다.”

덕문 스님은 결연했다. 부처님 제자답게 위의를 갖춰 대회를 치르겠다고도 했다. “부득이하게 목소리를 내게 됐지만, 정중하고 엄중하게 위의를 갖춰 승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불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왜곡과 폄훼로부터 한국불교 지키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 해 부터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의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행위들로 인해 우리 불자들은 새해, 새 희망 대신 고통과 상처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탈종교화 현상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현재의 위기 속에서 한국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부대중이 중심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승려대회를 시작으로 범불교도대회까지 스님들을 외호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각오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를 향한 끊임없는 왜곡과 편향적 행위를 근절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며 종도로서의 역할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갈등 조장하는 정부는 사과하라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한국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임진왜란 때 승병,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다수 등재되는 등 한국 역사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전통을 갖고 있으나 정작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재구역입장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수행과 종교행위가 일어나는 종교유산이라는 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문제라면 이를 대체하는 제도나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선결되기 전까지 포교사단은 끊임없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문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편향 방지 제도 개선 시급하다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화난 불심에 정청래 의원이 신중하지 못한 언사로 불을 질렀을 뿐입니다. 대선을 두 달 남짓 남아있는 시기에, 종단의 승려대회가 정치적 이해타산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종교편향에 대해 침묵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에서는 종교간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주어사 · 천진암 사건에서 보듯 종교 간에 평화를 원하는 불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무례함은 도를 넘어 왔습니다.

정부의 종교편향에 입 다물고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불교계는 정책적으로 소외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대부중은 불자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승려대회 개최를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자세 필요해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종교편향 · 종교차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불편한 정서를 표출하기 이전에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교계가 종교 편향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관심이나 방관일수도 있습니다.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불교계의 경우 이 같은 게 전무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종교화합도 서로 알고 이해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 종교차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종교갈등 역시 그 종교의 특징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종교편향 · 차별행위들에 대해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불교 문화보존 의식 높여야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우리 청년대학생불자들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한국불교를 폄훼하여 많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요구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불교계의 입장과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불청 · 대불련 청년대학생불자들은 정부의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 무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불청 · 대불련 청년대학생불자들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있는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재 보존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길 요구합니다.

불교 외호에 청년불자 적극 동참을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최근 천진암 및 주어사를 포함한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 비하 동영상 제작, 문체부의 크리스마스 캐롤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의 거짓 선동과 불교 왜곡에 더해서 사찰비하 발언 등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종교 편향과 불교 차별 행위들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및 관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종교편향적이며 불교왜곡 사건들로 인해 우리 대학생 불자들을 비롯한 불교계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정부기관은 올바른 정책과 방향으로 종교편향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며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불교계에 사과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개인 신앙으로 시종일관 종교편향

문재인 정부(2017~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가톨릭만 받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5월 취임 후 내각 구성도 안 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는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정권 초기 미국 · 중국 · 러시아 · 유럽연합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에 가톨릭 주교를 로마교왕청에 특사로 보내는 유례없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謁見)’ 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순방 때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당을 방문하고 고위 성직자를 만나 기본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2020년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을 펼쳐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인 ‘봉이 김선달’ 에 이은 것이라 불교계의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13일 청와대서 열린 축성식.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



1.21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증　　명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자문위원 :**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
명예원로 전계대화상 / 총림 방장

●**지도위원 :** 현직 대종사 및 대종사급 스님

●**봉행위원장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위원장**

• 조계종 :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 전국비구니회장

• 종단협의회 : 천태종 총무원장, 진각종 통리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총지종 통리원장, 대각종 총무원장

●**상임봉행위원**

• 조계종 :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이사장, 역대 중앙종회의장, 역대 호계원장, 역대 교육원장, 역대 포교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 종단협의회 : 상임이사 종단 및 이사 종단 총무원장

●**봉행위원**

• 조계종
– 전국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종헌종법기관(계단위원회, 법계위원회, 법규위원회, 초재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고시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성보보존위원회 등)
– 전국선원수좌회 임원
– 전국비구니회 임원
–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산하기관 교역직
– 교육교역자(중앙승가대, 동국대, 승가대 및 대학원 학장)
– 직영사찰 주지 및 교구별 수말사 주지
– 중진스님 :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등

• 종단협의회
– 회원 종단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중앙종회의원 등

●**집행위원회**

• 조계종
– 중앙종무기관 : 총무부장(집행위원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 교구본사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총무간사(고운사 주지)
– 중앙종회 :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총무분과위원장(종교편향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분과위원장, 사무처장
– 주요사찰 주지 :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화계사 진관사
–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 전국비구니회 : 부회장

●**상임집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부장

●**공동집행위원장**

• 조계종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수석 부회장,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 봉은사 주지 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 종단협의회 :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사무처**

총괄팀 · 조직팀 · 행사팀 · 총무재정팀
홍보팀 · 호법팀

●**외호대중**

•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일반직 종무원
• 중앙신도회 및 교구신도회
•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등